

【扁口魚 편구어】가자미. 鱈魚.

【扁擔 편담】나무로 만들어 한쪽 어깨에 걸치는 맬대. 扁挑. 《古尊宿語錄, 佛眼普說語錄》一似村裏人把扁擔共上將軍鬪, 我者裏七事隨身, 手中是關羽八十斤刀, 他便把扁擔劈頭打一棒. /朝鮮, 李義鳳《古今釋林 23, 華漢譯語, 釋物, 扁擔》按余見漢人男子, 擔而不負, 用一條木, 兩頭懸物, 用扁擔之, 謂之扁擔, 重可百斤, 其運水搬柴, 皆用此法, 其行遠路者, 用行李與鋪蓋, 卷作一條, 加諸肩, 倦則移左移右, 雖千里之遠, 亦如此.

【扁擔社 편담사】원대(元代)의 민간 조직 이름. 《元史, 泰定帝紀 1》[泰定二年九月]甲寅, 禁饑民結扁擔社, 傷人者杖一百, 著爲令.

【扁對 편대】편액(扁額)의 대련(對聯). /清, 袁枚《隨園詩話 1》凡神廟扁對, 難其用成語而有味.

【扁挑 편도】=扁擔. 《醒世恒言, 一文錢小隙造奇冤》同着十來個家人, 拿了許多扁挑·索子·鐮刀, 正來下缸.

【扁桃 편도】오얏의 한 가지. 감복송아. 匾桃.

【扁毒 편독】독초(毒草)의 한 가지. 잎은 연록색에 광택(光澤)이 나고, 꽃은 황(黃)·녹(綠)·백(白)·담자(淡紫) 등의 색이 있다. 牛扁. /明, 李時珍《本草綱目, 草 6, 牛扁》[釋名]扁特, 扁毒, 集解, 別錄曰, 牛扁生桂陽川谷, 弘景曰, 今人不復識此, 恭曰, 此藥似莖草石龍芮, 根如秦芃, 而細生平澤下地, 田野人名爲牛扁, 療牛虱甚效, 太常名扁特, 或名扁毒.

【扁豆 편두】불콩. 扁豆. /明, 李時珍《本草綱目, 穀 3, 扁豆》[釋名]沿離豆, 蛾眉豆, 時珍曰, 扁本作扁, 莢形扁也. [集解]時珍曰, 扁豆, 二月下種, 蔓生延纏, 葉大如杯, 團而有尖, 其花狀如小蛾, 有翅尾形, 其莢凡十餘條.

【扁螺 편라】가막조개(蜆)의 별명. 《隋書, 文學傳, 劉臻》[臻]性好噉蜆, 以音同父諱, 呼爲扁螺.

【扁盧 편로】명의(名醫)를 이르는 말. 전국시대의 명의인 편작(扁鵲)을 노의(盧醫)라고도 부르는 데에서 비롯된 말이다. ⇒扁鵲. /明, 張居正《雜著》元氣虛弱, 年力衰憊, 一有病患, 補東則耗西, 實上則虛下, 雖有扁盧, 無可奈何.

【扁蔓 편만】=扁竹. /明, 李時珍《本草綱目, 草 5, 扁蓄》扁竹, 扁辨, 扁蔓.

【扁毛畜生 편모축생】날짐승을 욕하여 부르는 말. 《西遊記, 82回》妖精道, 我費了許多心, 安排這個素宴與你耍耍, 却不知這個扁毛畜生, 從那裏飛來, 把我的家火打破.

【扁旁 편방】한자(漢字) 구성(構成)에서 왼쪽 부분의 자형(字形)을 편, 오른쪽 부분의 자형을 방이라 한다. 偏傍.

【扁榜 편방】편액. /宋, 陸游《今上皇帝賜包道成御書崇道庵額》於是皇帝聞而異之, 故有扁榜之賜. /宋, 樓鑰《太府卿王公墓志銘》築圃北山之麓, 取孔德璋移文中語列爲扁榜.

【扁柏 편백】노송나무. 《直省志書, 曹縣》物產柏有數種, 扁柏·檜柏·刺柏·滋柏之不同, 惟扁柏可種, 木堅而細, 最難長大.

【扁辨 편변】=扁竹. /明, 李時珍《本草綱目, 草 5, 扁蓄》[釋名]扁竹, 扁辨, 扁蔓, 粉節草, 道生草.

【扁山 편산】호남성(湖南省) 악양현(岳陽縣)의 남서쪽에 있는 산. 수경주(水經注)에는 편산(編山)이라 하였다. 위에 아녀담(啞女塔)이 있다.

【扁緒 편서】남작하게 땅은 끈. 《說文, 糸》條, 扁緒也.

【扁善 편선】모두 좋음. 모든 면이 더 훌륭함. 《荀子, 修身》扁善之度, 以治氣養生, 則身後彭祖, 以修身自強, 則名配堯禹. 《王念孫雜志》扁, 讀爲偏……偏善者, 無所往而不

善也.

【扁善齋 변선재】청(淸) 등가증(鄧嘉緝)의 호(號).

【扁蝨 편슬】빈대. /淸, 厲荃《事物異名錄, 昆蟲, 蝨》山堂肆考, 身扁而臭, 不能跳, 善嚙人者, 又名交蚤, 又名扁蝨.

【扁乘 편승】작은 수레. /唐, 佚名氏《河東記, 韋浦》有扁乘數十適至, 方解轅縱牛, 齧草路左.

【扁食 편식】물만두[水餃子]·군만두[鍋貼] 등의 밀가루 음식을 이르는 말. 중국 북방(北方)의 속어(俗語). /淸, 王譽昌《崇禎宮詞注》翊坤宮近侍劉某, 善治扁食, 進御者必其手造. /淸, 潘榮陞《帝京歲時紀勝, 皇都品彙》孫鬍子, 扁食包細細, 馬思遠, 糯米滾元宵.

【扁心 편심】좁은 마음. 또는 심지(心地)가 응졸함. /明, 何景明《與何粹夫書》先生乃復欲憤世自遂, 長往之情得矣, 恐不免于扁心之譏, 而或繆于義退之道也.

【扁額 편액】글씨를 써서 문·대청·정자(亭子)·사당(祠堂) 같은 곳에 가로로 다는 액자(額子). /宋, 岳珂《程史, 劉蘊古》吳山有伍員祠, 瞰闔閭, 都人敬事之. 有富民捐貲爲扁額, 金碧甚侈. 《醒世恒言, 汪大尹火焚寶蓮寺》血紅的一座朱漆門樓, 上懸金書扁額, 題着寶蓮禪寺四個大字.

【扁然 변연】널리 퍼져 자라는 모양. 곳곳에서 자라는 모양. 《莊子, 知北遊》物已死生方圓, 莫知其根也, 扁然而萬物自古以固存. 《成玄英疏》扁然, 徧生之貌也.

【扁鵲 편작】전국시대 발해군(渤海郡) 막(鄭) 땅 출신의 명의(名醫). 일설에는, 노국(盧國)에 살았다고 하여 노의(盧醫)라고 칭하기도 한다. 성은 진(秦). 이름은 월인(越人). 장상군(長桑君)에게 의술을 배웠다. 진(秦)나라의 태의령(太醫令)이 되었다. 이혜(李醜)가 그의 의술을 시기하여 사람을 시켜 척살(刺殺)하였다. 저서: 扁鵲內外經·難經. 《史記 105》·《漢書, 藝文志》

【扁鵲起號 편작기력】고대(古代)의 명의(名醫)인 편작이 기(號)나라의 태자(太子)가 죽은 것을 소생(蘇生)시킨 고사(故事). 《史記, 扁鵲傳》扁鵲過號, 號太子死……扁鵲乃使弟子子陽厲鍼砥石, 以取外三陽五會, 有間, 太子蘇, 乃使子豹爲五分之熨, 以八減之齊和責之, 以更熨兩脇下, 太子起坐, 更適陰陽, 但服湯二旬而復故, 故天下盡以扁鵲爲能生死人.

【扁鵲鈴 편작령】후추(椒)의 다른 이름. /宋, 陶穀《淸異錄, 藥, 扁鵲鈴》椒, 又名扁鵲鈴, 蜀產者上, 葉屬木故青, 皮本火故赤, 花應土故黃, 膜兆金故白, 子符水故黑, 五行全足, 草中大丹, 服餌家重之.

【扁鵲神應鍼灸玉龍經 편작신응침구옥룡경】원(元)의 왕국서(王國瑞)가 지은 책. 1권. 침구법(鍼灸法)을 전문으로 논술(論述)한 책이다. 《四庫提要, 子, 醫家類》

【扁前 편전】벌레 이름. 등에[蛇] 따위. 쇠등에. /明, 李時珍《本草綱目, 蟲 3, 蜚蝨, 附錄》扁前, 別錄, 有名末用曰, 味甘有毒, 主風癩癢閉, 利水道, 生山陵中, 狀如牛蝨, 赤翼, 五月八月采之.

【扁諸 편제】검(劍) 이름. 일설에는, 扁諸로 검의 장식이라고 한다. /漢, 袁康《越絕書, 外傳記吳地傳》闔閭家……銅槲三重, 墳池六尺, 玉鳧之流, 扁諸之劍三千. 《東周列國志, 74回》闔閭以魚腸爲不祥之物, 函封不用, 築冶城於牛首山, 鑄劍數千, 號曰扁諸.

【扁舟 편주】㉠작은 배. 조각배. 《史記, 貨殖傳》范蠡既雪會稽之恥, 乃喟然而歎曰, 計然之策七, 越用其五而得意. 既已施於國, 吾欲用之家. 乃乘扁舟浮於江湖. /宋, 蘇軾《前赤壁賦》駕一葉之扁舟, 舉匏尊以相屬. ㉡여러 척의 배를 나

란히 묶어 만든 배. /漢, 徐幹《中論, 修本》乘扁舟而濟者, 其身也安, 粹大道而動者, 其業也美.

【扁舟乘興 편주승흥】 친구를 찾아가는 것을 이르는 말. 진(晉)의 왕희지(王徽之)가 눈 내리는 밤에 섬계(剡溪)에 사는 친구 대규(戴逵)가 생각나서, 배를 타고 밤을 새워 대규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흥이 다해 그냥 되돌아 온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訪戴·雪夜訪戴. /明, 高啓《題朱氏梅雪軒詩》雪晴花發須相記, 我亦扁舟乘興來. 《世說新語, 任誕》

【扁舟意 편주의】 속세를 떠나 은둔하려는 결심.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범려(范蠡)가 구천(句踐)을 도와 오(吳)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조각배를 타고 오호(五湖)를 돌아다닌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晉, 張方《楚國先賢傳》句踐滅吳, 謂范蠡曰, 吾將與子分國有之. 蠡曰, 君行矣, 臣行意. 乃乘扁舟泛五湖, 終不返. /宋, 王安石《次韻吳仲庶省中畫壁》知君定有扁舟意, 却爲丹青肯少留.

【扁舟興盡 편주흥진】 친구를 찾아가다가 흥이 다하여 그냥 되돌아가는 것을 이르는 말. →扁舟乘興. /宋, 張元幹《跋趙唐所藏訪戴圖詩 1》人踪鳥迹俱沉寂, 獨有扁舟興盡歸.

【扁竹 편죽】 식물(植物) 이름. 마디풀. 황달(黃疸)·과란(霍亂)·복통(腹痛) 등의 약재로 쓴다. 扁蔓. 扁辨. 扁筑. /明, 李時珍《本草綱目, 草 5, 蕭蓄》[釋名]扁竹, 扁辨, 扁蔓, 粉節草, 道生草, 主治浸淫疥癬疽痔殺三蟲, 療女子陰蝕, 煮汁飲, 小兒療蚊蟲有驗, 治霍亂黃疸, 利小便, 小兒魘病.

【扁倉 편창】 춘추전국시대의 명의인 편작(扁鵲)과 창공(倉公)의 병칭. 전의되어, 명의를 두루 이르는 말로 쓰인다. 倉扁. 《史記, 扁鵲倉公傳贊》扁鵲以其伎見殃, 倉公乃匿迹, 自隱而當刑. /明, 方孝孺《次王仲縉感懷韻 9》保身戒無疾, 制治憂小康. 苟操敬慎心, 何必求扁倉.

【扁青 편청】 산중의 골짜기에 있는 납작하고 색깔이 푸른 돌. 약재나 물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唐, 張彥遠《歷代名畫記, 論畫體工用拓寫》越嶠之空青, 蔚之曾青, 武昌之扁青……並爲重采. /明, 李時珍《本草綱目, 金石 4, 扁青》[集解]別錄曰扁青生朱崖山谷·武都·朱提, 採無時. ……蘇恭言即綠青者非也, 今之石青是矣. 繪畫家用之, 其色青翠不渝, 俗呼爲大青, 楚蜀諸處亦有之……本草所載扁青·層青·碧青·白青, 皆其類耳.

【扁筑 편축】 =扁竹. /明, 李時珍《本草綱目, 草 5, 蕭蓄》[釋名]時珍曰, 許慎說文作扁筑, 與竹同音.

【扁鍼 편침】 편작(扁鵲)의 침술(鍼術). 전의되어, 고명(高明)한 의술을 이른다. →扁鵲. /明, 陳子龍《上石齋師》方將乞媧石而補蒼昊, 求扁鍼以返蒼魂.

【扁扁 편편】 ①납작한 모양. 평평한 모양. 《詩, 小雅, 白華》有扁斯石. <毛傳>扁扁, 乘石貌. <孔穎達疏>乘車之時履此石而上, 故謂此石爲乘石. 《兒女英雄傳, 24回》後面那座彩亭, 抬着却像件扁扁的東西. ②기뻐하는 모양. 《孟子, 離婁 下》施施從外來. <趙岐注>施施, 猶扁扁, 喜悅之貌. <焦循正義>詩小雅巷伯, 緝緝翩翩. 釋文云, 翩字又作扁. 張華鶴鶴賦云, 翩翩然有以自樂也. 施之義爲褒, 偏之義亦爲褒. 施施猶扁扁, 即猶翩翩, 以轉注爲假借也. 漢書敘傳云, 魏其翩翩. 師古注亦云, 翩翩, 自喜貌. ③협소(狹小)함. 식견이나 마음이 좁은 것을 이른다. /漢, 揚雄《太玄, 達》次四, 小利, 小達大迷, 扁扁不救. <司馬光集注>扁扁, 狹小兒. /明, 何景明《樊少南字說》今夫學者, 扁扁卑卑, 狹于守規.

【扁菹 편포두】 콩의 한 품종. 중국의 정주(靖州)·강주(江州) 등지에서 생산된다. /朝鮮, 徐有榘《林園十六志, 本利志 7, 穀名攷, 菹》扁菹豆·膠州青·骨裏青·豹腰青. 并產

靖江等地, 色青而粒大, 味美.

【扁表 편표】 선행(善行)을 행한 사람의 집 대문에 국가가 그 사실을 표창한 글을 걸어주는 일. 《後漢書, 百官志 5》凡有孝子順孫·貞女義婦, 讓財救患, 及學士爲民法式者, 皆扁表其門, 以興善行.

【扁蟪 편희】 납거미[壁錢蟲]의 다른 이름. 壁鏡. /清, 厲荃《事物異名錄, 昆蟲, 壁繭》山堂肆考, 壁錢蟲似蜘蛛, 而身扁, 作白幕如錢, 著壁間, 俗呼爲壁蠶. 其抱子隔幕而伏, 生子百數, 垢幕而出, 一名扁蟪, 一名壁鏡.

6 扇 갑 합 ㉠ 《集韻》 渴合切 qù

닫다. 혹은 扇으로도 쓴다. 《集韻, 合韻》扇, 說文, 閉也, 或作扇.

6 扇 ㉠ 상 《玉篇》 書掌切 shǎng ㉡ 경 jiō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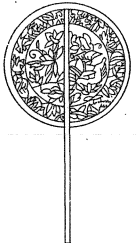
㉠문고리. 《玉篇, 戶部》扇, 戶耳也. ㉡扇의 속자. 《正字通, 戶部》扇, 俗扇字.



- ㉠ 선 線 ㉠ 《廣韻》 式戰切 shàn
- ㉡ 선 仙 ㉠ 《廣韻》 式連切 shān

《說文, 戶部》扇, 扉也. 从戶, 从敝聲.

㉠대나 갈대를 엮어 만든 사립문. 《禮記, 月令》乃脩閤扇. <鄭玄注>用木曰閤, 用竹葦曰扇. ㉡각종 문이나 문짝. /北魏, 楊銜之《洛陽伽藍記, 法雲寺》重門啓扇, 閤道交通. 《資治通鑑, 梁武帝太清2年》賊又以長柯斧斫東掖門, 門將開, 羊侃鑿扇爲孔, 以槩刺殺二人, 斫者乃退. <胡三省注>扇, 門扇也. ㉢부채. 《玉篇, 戶部》扇, 箑也. 或竹或素, 乍羽乍毛, 用取風. /漢, 班婕妤《怨歌行》新裂齊紈素, 皎潔如霜雪, 裁爲合歡扇, 團團似明月.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輕詆》坐大風揚塵, 王以扇拂塵曰, 元規塵汗人. ㉣의仗(儀仗)으로 쓰이는 자루가 긴 부채. →扇仗의 ㉤. /唐, 杜甫《秋興詩 1》雲移雉尾開宮扇, 日繞龍鱗識聖顏. 《遼史, 禮志 5》所司承旨索扇, 扇上, 樂作, 皇后出閣升坐, 扇開, 簾捲, 偃塵, 樂止. ㉥수건이나 머리 덮개 따위의 직물. 《文選, 潘岳, 射雉賦》候扇舉而清叫, 野聞聲而應媒. <徐愛注>扇, 布也, 形如手巾. /唐, 李公佐《南柯太守傳》徹障去扇, 見一女子, 云號金枝公主. ㉦명수사. ㉧쪽. 문이나 창 따위의 납작한 기물을 세는 단위. /唐, 白居易《長恨歌》釵留一股合一扇, 釵擘黃金合分鈿. /元, 張國寶《羅李郎, 3折》正未見雜當云……你蒸下多少飯我都要. 雜當云, 則有三扇饅頭. ㉨말의 고환을 잘라내다. 가축의 고환이나 난소를 제거하다. 騙과 같다. 《新五代史, 郭崇韜傳》當畫去宦官, 至于扇馬, 亦不可騎. /宋, 彭大雅《黑韃事略》四齒則扇, 故闊壯而有力, 柔順而無性, 能風寒而久歲月. ㉩성(姓). 《萬姓統譜, 靛韻》



扇 ㉠ 《三才圖會》

見一女子, 云號金枝公主. ㉦명수사. ㉧쪽. 문이나 창 따위의 납작한 기물을 세는 단위. /唐, 白居易《長恨歌》釵留一股合一扇, 釵擘黃金合分鈿. /元, 張國寶《羅李郎, 3折》正未見雜當云……你蒸下多少飯我都要. 雜當云, 則有三扇饅頭. ㉨말의 고환을 잘라내다. 가축의 고환이나 난소를 제거하다. 騙과 같다. 《新五代史, 郭崇韜傳》當畫去宦官, 至于扇馬, 亦不可騎. /宋, 彭大雅《黑韃事略》四齒則扇, 故闊壯而有力, 柔順而無性, 能風寒而久歲月. ㉩성(姓). 《萬姓統譜, 靛韻》

㉑ 당 養 ㉒ 《廣韻》 他朗切

《說文, 竹部》箴, 大竹箴也. 从竹, 易聲.

㉑㉒ 큰 대통으로 만든 관악기. 《說文, 竹部》箴, 大竹箴也. <段玉裁注> 笙簫之屬, 而謂之箴者, 大之也. ㉓ 술을 담는 대그릇. 《玉篇, 竹部》箴, 竹器也. 可以盛酒. 《集韻, 蕩韻》箴, 盛酒竹器. ㉔ 큰 대나무. 籜과 같다. 《正字通, 竹部》箴, 同籜. 《書, 禹貢》篠簜既敷. <陸德明釋文> 籜或作箴.

9 箴



㉑ 태 海 ㉒ 《廣韻》 徒亥切 [怠] tái
㉑ 태 哈 ㉒ 《廣韻》 徒哀切
㉑ 시 止 ㉒ 《廣韻》 胥里切

《說文, 竹部》箴, 竹萌也. 从竹, 怠聲.

㉑㉒ 죽순. 《爾雅, 釋草》箴, 箭萌. <郭璞注> 萌, 筍屬也. 《說文, 竹部》箴, 竹萌也. <段玉裁注> 箴, 从怠, 與始同音, 取始生之意. 筍謂掘諸地中者, 如今之冬筍, 箴謂已抽出者, 如今之春筍. /南朝梁, 王筠《奉和皇太子懽悔應詔詩》 早蒲欲抽葉, 新筍向舒箴. ㉓ 죽순의 껍질. 《玉篇, 竹部》箴, 筍皮也. ㉔ 이끼. 箔(苔)와 같다. 《集韻, 之韻》箔, 水中魚衣. 或从怠. 【箴萌 태명】 새싹. 사물의 시초나 발단을 비유한다. /清, 章炳麟《疇書, 訂文》 萬事之箴萌, 皆伏于蠱. 名實惑眩, 將爲之別異, 而假蹠近以爲文字. /清, 章炳麟《四惑論》 若夫後人者, 朕兆未形, 箴萌未現, 則悲性無自而生, 乃爲之勞神自苦, 不泰多事耶.

9 籜

과 卦 ㉑ 《集韻》 普卦切 [派] pài

뗏조각. 《玉篇, 竹部》籜, 竹片也.

9 篋

과

籜와 같다. 《玉篇, 竹部》篋, 同籜.

9 篇



편 仙 ㉑ 《廣韻》 芳連切 [偏] piān

《說文, 竹部》篇, 書也. 一曰關西謂榜曰篇. 从竹, 扁聲.

㉑ 죽간(竹簡). 간책(簡冊). 종이 대신 글씨를 쓴 대쪽을 끈으로 엮어 맨 책. 《漢書, 武帝紀》 詔賢良曰……賢良明於古今王事之體, 受策察問, 咸以書對, 著之於篇, 朕親覽焉. <顏師古注> 篇, 謂竹簡也. ㉒ 처음과 끝이 완성된 시문(詩文). 《玉篇, 竹部》篇, 篇什. /漢, 王充《論衡, 案書》 管仲相齊, 造輕重之篇. /唐, 劉知幾《史通, 敘事》 夫飾言者爲文, 編文者爲句, 句積而章立, 章積而篇成, 篇目既分, 而一家之言備矣. ㉓ 책의 내용을 일정한 단락으로 크게 나눈 한 부분. 《書, 太甲上》 伊尹作太甲三篇. 《史記, 孟子荀卿傳》 作孟子

七篇. ㉔ 시가·사부(辭賦) 등의 문학 작품. 《宋書, 謝靈運傳論》 王褒·劉向·揚·班·崔·蔡之徒, 異軌同奔, 遞相師祖, 雖清辭麗曲, 時發乎篇, 而無音累氣, 亦固多矣. /南朝梁, 蕭統《文選序》 自炎漢中葉, 厥塗漸異, 退傳有在鄒之作, 降將著河梁之篇. ㉕ 명수사. 시문을 세는 단위. 《墨子, 貴義》 昔者周公旦, 朝讀書百篇, 夕見十士. 《漢書, 枚乘傳》 凡可讀者百二十篇. ㉖ 편액(扁額). 《說文, 竹部》篇, 關西謂榜曰篇. <段玉裁注> 榜所以輔弓弩者, 此其引伸之義, 今之榜額·標榜是也, 關西謂之篇, 則同扁. ㉗ 길. 《廣雅, 釋器》 篇, 程也. ㉘ 성(姓). 《廣韻, 仙韻》 篇, 姓. 周大夫史篇之後.

【篇家 편가】 지은이. /漢, 王充《論衡, 須頌》 問說書者, 欽明文思以下, 誰所言也. 曰, 篇家也. 篇家誰也. 孔子也.

【篇簡 편간】 책. 전적(典籍). 고대에 글을 대쪽에 쓴 데에서 이른다. /南朝梁, 武帝《詔答周弘正》 篇簡湮沒, 歲月遼遠. 《隋書, 經籍志 1》 其餘篇簡錯亂, 不可復讀, 並送之官府.

【篇句 편구】 장구(章句). /清, 章炳麟《辨詩》 自爾千年, 七言之數以萬, 其可諷誦者幾何. 重以近體昌狂, 篇句填委, 凌褻史傳, 不本情性.

【篇卷 편권】 책을 이르는 말. /晉, 葛洪《抱朴子, 釋滯》 道書之出於黃老者, 蓋少許耳, 率多後世之好事者, 各以所知見而滋長, 遂令篇卷至於山積. 《隋書, 經籍志 1》 俗趨趨時, 益爲其學, 篇卷第目, 轉加增廣.

【篇技 편기】 시문을 짓는 재능. 글재간. /南朝梁, 江淹《建平王謝賜石硯等啓》 臣夙乏翰能, 素謝篇技.

【篇記 편기】 = 篇章의 ㉑. /漢, 崔瑗《述初賦》 觀游夏之峩峩, 聽大猷之篇記.

【篇端 편단】 문장이나 저작의 첫머리. /明, 沈德符《野獲編補遺, 刑部, 重刊閩範序》 斯世斯民, 有能觀感興起, 毅然以往哲自勵, 則是圖之刻, 不爲徒矣. 因敘歐指, 以冠篇端.

【篇牘 편독】 책. 전적(典籍). 《後漢書, 荀悅傳》 悅年十二, 能說春秋. 家貧無書, 每之人閒, 所見篇牘, 一覽多能誦記. /南朝梁, 沈約《上宋書表》 篇牘未廣其(何承天)所撰志, 唯天文·律曆, 自此外, 悉委奉朝請山謙之.

【篇聯 편련】 서로 연관되게 전편(全篇)을 구성함. 또는 한 편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시킴. /宋, 李上交《近事會元序》 如曰小不足講, 權則包差, 聊此篇聯, 無誚叢勝. 凡五百事, 釐爲五卷, 曰近事會元. /明, 宋濂《元處士吳萊》 濂嘗受學於立失, 問其作文之法, 則謂有篇聯, 欲其脈絡貫通, 有段聯, 欲其奇偶迭生.

【篇末 편말】 책 편(篇)의 끝. 《後漢書, 馬武傳》 故依其本第係之篇末, 以志功臣之次云爾. 《晉書, 列女傳序》 亦同搜次, 附于篇末.

【篇目 편목】 책 편(篇)의 이름. 《漢書, 藝文志》 劉向輒條其篇目, 撮其指意, 錄而奏之. /唐, 劉知幾《史通, 本紀》 昔汲冢竹書是曰紀年, 呂氏春秋肇立紀號. 蓋紀者, 網紀庶品, 網羅萬物. 考篇目之大者, 其莫過于此乎.

【篇帛 편백】 실로 짠 견직물. /南朝宋, 鮑照《紹古辭 2》 織纈多廢亂, 篇帛久塵縈. <黃節注> 說文徐曰, 篇, 連也.

【篇辭 편사】 문장. 《後漢書, 文苑傳贊》 情志既動, 篇辭爲貴. <李賢注> 毛詩序云, 情發於中而形於言. 詩者志之所之, 故情志動而篇辭作, 斯文章之爲貴.

【篇首 편수】 책 편(篇)의 첫머리. 《書序》 故引之, 各冠其篇首, 定五十八篇.

【篇數 편수】 책 편(篇)의 수. /漢, 王充《論衡, 正說》 說論語者, 但知以剝解之間, 以織維之難, 不知存問本根篇數章目. /唐, 柳宗元《唐錢歌鼓吹曲十二篇序》 今臣竊取魏晉

義, 用漢篇數, 爲唐鏡歌鼓吹曲十二篇, 紀高祖太宗功能之神奇, 因以知天下之勤勞, 命將用師之艱難.

【篇述 편술】 편(篇)으로 나누어 저술한 기록. 또는 작품의 저술. /南朝梁, 劉勰《文心雕龍, 諸子》篇述者, 蓋上古遺語, 而戰伐所記者也.

【篇什 편십】 시(詩). 시장(詩章). 시경(詩經)의 아(雅)와 송(頌) 10편(篇)씩을 묶어 십(什)이라고 하는 데서 이른다. 《晉書, 樂志上》三祖紛綸, 咸工篇什. 《隋書, 經籍志4》梁簡文之在東宮, 亦好篇什.

【篇語 편어】 시문. 또는 문장. /清, 沈宗疇《板橋雜記後跋》余甲申以前詩文盡皆焚棄, 中有贈答名妓篇語甚多.

【篇業 편업】 책을 짓고 이론을 세우는 일. /漢, 王充《論衡, 定賢》才高好事, 勤學不捨, 若專成之苗裔, 有世祖遺文, 得成其篇業, 觀覽諷誦.

【篇詠 편영】 시가(詩歌) 작품. /唐, 皇甫冉《閑居作詩》篇詠投康樂, 壺觴就步兵. 《舊唐書, 德宗紀贊》賜宴之辰, 徒矜篇咏.

【篇韻 편운】 옥편(玉篇)과 광운(廣韻)을 아울러 이르는 말. /清, 姚衡《寒秀草堂筆記1》[太平御覽]卷四百八十八, 涕, 鼻液也. 按篇韻皆云, 涕, 目汁.

【篇章 편장】 ①편과 장. 문장이나 저작을 두루 이른다. 篇記. 篇條. /漢, 王充《論衡, 別通》儒生不博覽, 猶爲閉閣, 況庸人無篇章之業, 不知是非, 其爲閉閣甚矣. /晉, 葛洪《抱朴子, 辭義》何必尋木千里, 乃構大廈, 鬼神之言, 乃著篇章乎. ②시(詩)를 이르는 말. /唐, 賈島《寄韓潮州愈詩》隔嶺篇章來華嶽, 出關書信過瀧流. /清, 俞樾《顧子山眉綠樓詞序》余謂詩則誠然, 若編詞則又以分類爲宜. 蓋詩而分類, 勢必割裂篇章, 有一人一時之酬贈而分列數卷者. 詞則異是.

【篇籍 편적】 책. 전적(典籍). 篇典. 《漢書, 藝文志》漢興, 改秦之敗, 大收篇籍, 廣開獻書之路. /晉, 左思《詠史7》四賢豈不偉, 遺烈光篇籍.

【篇典 편전】 = 篇籍. 《後漢書, 胡廣傳》廣復與敞虔上書駁之, 曰……竊惟王命之重, 載在篇典, 當令懸於日月, 固於金石, 遺則百王, 施之萬世.

【篇第 편제】 책 편(篇)의 순서. /漢, 王充《論衡, 超奇》其高第若谷子云·唐子高者, 說書于牘奏之上, 不能連結篇章. 或抽列古今, 紀著行事, 若司馬子長·劉子政之徒, 累積篇第, 文以萬數, 其過子云·子高遠矣. 《隋書, 經籍志1》安國並依古文, 開其篇第, 以隸古字寫之, 合成五十八篇.

【篇製 편제】 창작함. 작품을 지어냄. /南朝梁, 劉勰《文心雕龍, 明詩》江左篇製, 溺乎玄風.

【篇題 편제】 편(篇)의 이름. /清, 章炳麟《文學說例》前世著述, 篇題多無義例.

【篇條 편조】 = 篇章의 ①. 《晉書, 刑法志》今制新律, 宜都總事類, 多其篇條. /南朝梁, 劉勰《文心雕龍, 正緯》若鳥鳴似語, 蟲葉成字, 篇條滋蔓, 必假孔氏.

【篇帙 편질】 책의 편(篇)과 질(帙)을 이르는 말. 篇帙. 《新唐書, 隱逸傳, 陸龜蒙》借人書, 篇帙壞舛, 必爲輯褫刊正. /明, 胡應麟《少室山房筆叢, 經籍會通2》阮孝緒七錄, 亦另錄釋·道二家……余意二藏篇帙既多, 且本方外之說, 分門另錄, 似無不可.

【篇秩 편질】 = 篇帙. /宋, 王安石《進熙寧編敕表》具慚淺學, 莫副詳延, 屢彌歲年, 僅就篇秩, 刪除煩復, 搜補闕遺.

【篇次 편차】 책 편(篇)의 순서. /三國魏, 何晏《論語集解叙》魯共王時, 嘗欲以孔子宅爲宮. 壞得古文論語……篇次不與齊·魯論同. /宋, 曾鞏《禮閣新儀目錄序》蓋此書本三十

篇, 則集賢院書雖具, 然其篇次亦亂. 既正其脫謬, 因定著從目錄, 而禮閣新儀三十篇復完.

【篇冊 편책】 책. 전적. /清, 趙翼《陔餘叢考, 本草》世謂南農嘗藥時, 尚無文字以識相付, 至桐雷乃載之篇冊.

【篇體 편체】 문장의 체재(體裁). /南朝梁, 劉勰《文心雕龍, 頌贊》所以古來篇體, 促而不廣.

【篇統 편통】 책 편(篇) 간의 통일된 배치를 이르는 말. /南朝梁, 劉勰《文心雕龍, 附會》篇統間關, 情數稠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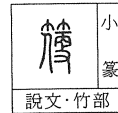
【篇幅 편폭】 시문의 길이를 이르는 말. /清, 趙翼《甌北詩話, 白香山詩》然二人, 創此體後, 次韻者固習以爲常, 而篇幅之長且多, 終莫有及之者. 至今猶推獨步也.

【篇翰 편한】 편(篇)과 장(章). 흔히 시문을 이른다. /南朝宋, 鮑照《擬古詩2》十五諷詩書, 篇翰靡不通. /唐, 李德裕《追和太師顏公同清遠道士遊虎丘寺》逸人綴清藻, 前哲留篇翰.

【篇海 편해】 금(金)의 한효언(韓孝彦)이 지은 자서(字書). 15권. 본래 이름은 사성편해(四聲篇海). 옥편(玉篇) 5백 42부(部)를 36자모(子母)에 의하여 배열하고, 유편(類篇)과 용감수감(龍龕手鑑) 등의 책에서 잡부(雜部) 37부를 증가하여 5백 79부로 나눈 것을 그의 아들 도승(道昇)이 4백 44부로 나누었다. 《四庫提要, 經, 小學類存目》

【篇海類編 편해유편】 명(明)의 송염(宋濂)이 지은 자서(字書). 20권. 《四庫提要, 經, 小學類存目》

9 篋



- ㉠ 편 仙 ㉡ 《廣韻》卑連切 [鞭] biān
- ㉢ 편 仙 ㉣ 《廣韻》房連切 [便]

《說文, 竹部》篋, 竹輿也. 从竹, 便聲.

㉠㉡ 죽여(竹輿). →篋輿. ㉢대그릇의 하나. →篋筥.

【篋筥 편려】 대오리로 엮어 만든 밥그릇. 《急就篇3》筥筥篋筥筥筥. <顏師古注>竹器之盛飯者, 大曰篋, 小曰筥.

【篋筥燈籠 편순등롱】 대오리로 엮어 만든 등롱(燈籠). /清, 捧花生《畫舫餘談》迴顧篋筥燈籠, 早徑陳列岸上.

【篋輿 편여】 대로 엮어 만든 가마. 죽여(竹輿). 《史記, 張耳陳餘傳》上使泄公持節問之篋輿前. <裴駰集解>輿如今輿牀, 人輿以行. /宋, 王安石《雨花臺詩》篋輿却走垂楊陌, 已載寒雲一兩星.

9 篋

피 《玉韻》蒲彌切 p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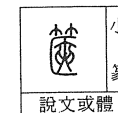
농(籠). 《玉篇, 竹部》篋, 籠也.

9 筥

할 《川篇》音錯 xiá

줍다. 《改併四聲篇海, 竹部》川篇: 筥, 拾也.

9 篋



說文或體

寮。

●울타리. → 篳門. 《說文, 竹部》篳, 籬落也. <段玉裁注> 籬落猶俗云籬落也. <王筠句讀> 屏蔽之以爲院落也. 《廣雅, 釋宮》[篳]地也. <王念孫疏證> 地, 今籬字也. ●악기 이름. → 篳篥.

【篳篥 필두】 篳門閨寶의 준말. /元, 金涓《贈術士呂公詩》短褐垂綸已十載, 柴扉篳篥即湖邊.

【篳路(路) 필로】 ●가시나무나 대를 엮어 만든 간소한 수레. /晉, 束皙《近遊賦》乘篳路之偃蹇, 駕蘭單之疲牛. ●= 篳路藍縷. /明, 張煌言《感事詩 2》篳路曾無異, 桃源恐不同. /清, 李慈銘《越縵堂讀書記, 十二札記》顧氏於此事開篳路, 後儒雖議其未盡, 而其言包括賅通, 最得古今祕要.

【篳路(路)藍縷 필로남루】 간소한 수레와 해진 옷. 전 의되어, 갖은 고생을 하여 창업(創業)함을 이른다. 篳路. <左傳, 宣公12年> 篳路藍縷, 以啓山林. <孔穎達疏> 以荆竹織門謂之篳門, 則篳路亦以荆竹編車, 故謂篳路爲柴車. 方言云, 楚謂凡人家貧衣破醜敝爲藍縷. 藍縷, 謂敝衣也. 意思是坐着柴車, 穿着破衣服去開辟山林. /宋, 劉克莊《饒州新城記》昔之人有篳路藍縷而造邦者, 有布衣帛冠而強國者. /清, 梁啟超《過渡時代論 6》故必有大刀闊斧之力, 乃能收篳路藍縷之功.

【篳篥 필름】 고대의 관악기. 주로 군중(軍中)에서 사용하였다. <北史, 高麗傳> 樂有五弦·琴·箏·篳篥·橫吹·簫·鼓之屬, 吹籥以和曲. /宋, 莊季裕《鷄肋編, 下》篳篥本名悲篥, 出於邊地, 其聲悲亦然, 邊人吹之, 以驚中國馬云.

【篳門 필문】 가시나무나 대를 엮어 만든 문. 사람문. 가난한 사람의 집을 비유한다. → 篳門閨寶. <禮記, 儒行> 儒有一畝之宮, 環堵之室, 篳門圭窬, 蓬戶甕牖. <陸德明釋文> 鄭云篳門, 荆竹織門也. 杜預云柴門也. /明, 劉基《呂周臣詩集序》周臣以通濟之才, 沉下僚而無怨, 篳門陋巷, 爲詩歌以自適.

【篳門閨(圭)寶 필문규두】 가시나무나 대를 엮어 만든 문과 벽을 뚫어 만든 작은 창. 가난한 사람의 거처를 비유한다. 篳寶. 篳門圭窬. 篳門閨寮. <左傳, 襄公10年> 篳門閨寶之人, 而皆陵其上, 其難爲上矣. <杜預注> 篳門, 柴門. 閨寶, 小戶, 穿壁爲戶, 上銳下方, 狀如圭也. /清, 錢謙益《陳府君墓誌銘》長身偉衣冠, 遇篳門圭寶, 偃僂而入.

【篳門圭窬 필문규유】 = 篳門閨寶. <禮記, 儒行> 儒有一畝之宮, 環堵之室, 篳門圭窬, 蓬戶甕牖.

【篳門閨寮 필문규유】 = 篳門閨寶. /晉, 陸雲《與陸典書書 5》篳門閨寮之人, 敢晞天望之冀.

11 籥 함

筥(筥)과 같다. 《集韻, 覃韻》筥, 或作筥·籥.

11 箛 현 先 ㊦ 《集韻》 胡千切 xián

화살대. 《集韻, 先韻》箛, 箭筈.

11 簞 호 姥 ㊦ 《廣韻》 侯古切 hù

물고기를 잡는 대고물. 《廣韻, 姥韻》簞, 海中取魚竹名曰簞.

《太平廣記 295》陳悝: 隆安中, 丹徒民陳悝於江邊作魚簞, 潮去, 於簞中得一女.

11 篳 호 暮 ㊦ 《集韻》 荒故切 hù

대바구니. 《集韻, 莫韻》篳, 籠也.

12 簡	金	簡	小
竹	文	簡	篆
中山王壺	說文·竹部		

간 産 ㊦ 《廣韻》 古限切 jiǎn

《說文, 竹部》簡, 牒也. 从竹, 間聲.

簡으로도 쓴다. ●글자를 기록하는 대나무 조각. 죽간(竹簡). 《說文, 竹部》簡, 牒也. <朱駿聲通訓定聲> 竹謂之簡, 木謂之牒……聯之爲編, 編之爲冊. <墨子, 非命 下> 子胡不尚考之乎商·周·虞·夏之記. 從十簡之篇以尚, 皆無之. <左傳, 襄公25年> 南史氏聞大史盡死, 執簡以往, 聞既書矣, 乃還. ●책, 서적. 《廣雅, 釋器》簡謂之簡. <禮記, 內則> 禮帥初, 朝夕學幼儀, 請肄簡諒. <孔穎達疏> 簡, 禮篇章也. <陳澧集說> 簡書篇數也. <漢書, 薛宣傳> 宣考績功課, 簡在兩府, 不敢過稱以奸欺誣之罪. <楊樹達窺管> 說文五篇上, 竹部云, 簡, 牒也. 此與論語堯曰篇, 簡在帝心, 文同而義異. ●편지. 서간. 또는 편지를 보내다. /唐, 杜甫《同元使君春陵行序》不意復見比興體制微婉頓挫之詞, 感而有詩, 增諸卷軸, 簡知我者, 不必寄元. /唐, 柳宗元《答貢士元公瑾論仕進書》辱致來簡, 受賜無量. ●간이(簡易)하다. 간단하다. 또는 간단히 하다. 《廣韻, 産韻》簡, 略也. 《易, 繫辭 上》乾以易知, 坤以簡能. <孔穎達疏> 簡謂簡省凝靜, 不須繁勞, 以此爲能. <禮記, 樂記> 大樂必易, 大禮必簡. /南朝梁, 劉勰《文心雕龍, 物色》物色雖繁, 而析辭尚簡. ●가볍게 여기다. 같보다. 《字彙, 竹部》簡, 慢也. <管子, 匡乘馬> 五穀興登, 則土輕輒, 民簡賞. 《孟子, 離婁 下》諸君子皆與驩言, 孟子獨不與驩言, 是簡驩也. <淮南子, 俶真訓> 冬日之不用嬰者, 非簡之也, 清有餘於適也. <高誘注> 簡, 賤也. ●나태하다. 소홀히 하다. → 簡慢. /清, 龔自珍《尊隱》朝士僞焉偷息, 簡焉偷活, 側焉惶惶商去留. ●드물다. 적다. 《莊子, 人間世》其作始也簡, 其將畢也必巨. <成玄英疏> 初起簡少, 後必巨大. <韓非子, 八說> 書約而弟子辯, 法省而民訟簡. <後漢書, 郎顛傳> 昔堯遭九年之水, 人有十載之蓄者, 簡稅防災, 爲其方也. <李賢注> 簡, 少也. ●검열하다. 시찰하다. 또는 훈련하다. → 簡服. 《廣雅, 釋言》簡, 閱也. <王念孫疏證> 桓六年左傳云, 大閱, 簡車馬也. <周禮, 春官, 大司馬> 大田之禮, 簡衆也. <鄭玄注> 古者因田習兵, 閱其車徒之數. <管子, 立政> 行鄉里, 視宮室, 觀樹藝, 簡六畜, 以時鈞修焉. <左傳, 昭公14年> 夏, 楚子使然丹簡上國之兵於宗丘, 且撫其民. ●검사하다. 검증하다. <周禮, 地官, 遂大夫> 正歲, 簡稼器, 脩稼政. <後漢書, 皇后紀 上, 明德馬皇后> 願下相工, 簡其可否. /晉, 葛洪《抱朴子, 祛惑》況長生之道, 眞人所重, 可不勤求足問哉. 然不可不精簡其眞僞也. ●실상을 조사·확인하다. 또는 실상에 부합하다. 《集韻, 産韻》簡, 誠也. /清, 朱駿聲《說文通訓定聲, 乾部》簡, 按, 猶實也. <書, 呂刑> 五簡簡孚, 正于五刑. <蔡沈集傳> 簡, 核其實也. <禮記, 王制> 司寇正刑明辟, 以聽獄訟, 必三刺, 有旨無簡不聽. <鄭玄注> 簡, 誠也. 有其意無其誠者, 不

論以爲罪. ㉔ 찾다. 찾아내다.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文學》陸文若排沙簡金, 往往見寶. /清, 沈德潛《說詩碎語, 下》然排沙簡金, 幾於無金可簡, 亦安用多爲哉. ㉕ 선택하다. 골라 쓰다. /清, 朱駿聲《說文通訓定聲, 乾部》簡, 段借爲柬. 《書, 尙命》慎簡乃僚, 無以巧言令色. <孔傳>當謹慎簡選汝僚屬. 《莊子, 庚桑楚》簡髮而櫛, 數米而炊. <成玄英疏>譬如擇簡毛髮梳以爲髻. <南齊書, 蕭景先傳>私馬有二十餘匹, 牛數頭, 可簡好者十匹. 牛二頭上臺. ㉖ 받다. 대우를 받다. /宋, 岳珂《程史, 趙良嗣隨軍詩》趙良嗣既來降, 頗自言能文, 間以詩篇進, 益簡眷遇, 至命兼官吏局令. ㉗ 버리다. 제거하다. 《禮記, 王制》上賢以崇德, 簡不肖以紕惡. /晉, 杜預《春秋經傳集解序》預今所以爲異, 專脩丘明之傳以釋經. 經之條貫, 必出於傳, 傳之義例, 總歸諸凡, 推變例以正褒貶, 簡二傳而去異端. ㉘ 분별하다. 구별하다. 《周禮, 夏官, 趣馬》掌贊正良馬, 而齊其飲食, 簡其六節. <鄭玄注>簡, 差也, 節, 猶量也. 差擇王馬以爲六等. 《北史, 宋遊道傳》忠臣奉國, 事在其心, 亦復何簡貴賤. 《資治通鑑, 陳宣帝太建12年》周復行佛·道二教, 舊沙門·道士精志者, 簡令入道. <胡三省注>簡, 分別也. ㉙ 크다. 《爾雅, 釋詁上》簡, 大也. 《論語, 公冶長》吾黨之小子狂簡. <何晏集解>簡, 大也. 《文選, 馬融, 長笛賦》夫其面旁則重巘增石, 簡積頽砭. <李善注>簡, 大也. ㉚ 훈(笏). 수판(手版). 《古今韻會舉要, 濟韻》簡, 手版……蓋單執一札謂之簡. /唐, 康駘《劇談錄, 龍待詔相笏》開成中, 有龍復本者, 無目, 善聽聲揣骨, 每言休咎, 無不中. 凡有象簡竹笏, 以手捻之, 必知官祿年壽. /宋, 沈括《夢溪筆談, 故事 1》衣冠故事多無著令, 但相承爲例. 如學士舍人躡履見丞相, 往還用平狀, 扣階乘馬之類, 皆用故事也. 近歲多用靴·簡. ㉛ 타악기 이름. ⇒ 簡자의 ㉜. 《醒世恆言, 李道人獨步雲門》正在徬徨之際, 忽聽得隱隱的漁鼓簡響……方纔想起, 臨出山時, 仙長傳授我的偈語, 第二句道, 聽簡而問. 這個不是漁鼓響. 我該問他的. ㉜ 채찍과 비슷한 병기의 일종. 뒤에 銅으로 썼다. 《宋史, 張玉傳》遇夏兵三萬, 有馳鐵騎挑戰者, 玉單持鐵簡出門, 取其首及馬, 軍中因號曰張鐵簡. /明, 謝肇淛《五雜俎, 人部》十八般(武器), 一弓二弩, 三鎗四刀……十一鞭, 十二簡. ㉝ 쇠뇌의 화살을 담은 전통. 簡과 통용. 《墨子, 備城門》延堞, 高六尺, 部廣四尺, 皆爲兵弩簡格. <孫詒讓問詁>說文竹部云, 簡, 所以盛弩也. ㉞ 諫과 통용. /清, 朱駿聲《說文通訓定聲, 乾部》簡, 段借爲諫. 《左傳, 成公8年》詩曰, 猶之未遠, 是用大簡. <杜預注>簡, 諫也. 詩大雅言王者圖事不遠, 故用大道諫之. ㉟ 있다. 남아 있다. 簡과 통용. /漢, 蔡邕《太傅安樂鄉文恭侯楊公碑》幹練機事, 綢繆樞機, 中亮唯允, 簡於帝心. 《後漢書, 耿秉傳》每公卿會議, 常引秉上殿, 訪以邊事, 多簡帝心. ㊱ 용명한 모양. 굳센 모양. 簡(擲)과 통용. 《詩, 邶風, 簡兮》簡兮簡兮, 方將萬舞. <俞樾平議>簡當讀爲擲, 說文人部, 擲, 武貌. 字亦作擲. 方言曰, 擲, 猛也. 簡兮簡兮, 乃武猛之貌. 《周禮, 考工記, 弓人》凡相筋, 欲小簡而長. <鄭玄注>簡讀爲擲然登陣之擲. <孫詒讓正義>擲然登陣, 左昭十八年傳文, 杜注云, 擲然, 勁慎貌. ㊲ 명수사. 편지나 쪽지를 세는 단위. /元, 高棅《集賢堂, 怨別, 套曲》一簡書和淚封, 一篇詞帶愁寄. ㊳ 물 이름. 황하(黃河)의 지류. 산둥성(山東省) 양신현(陽信縣)·낙릉시(洛陵市)의 경계를 흐른다. 《水經注, 河水 5》 ㊴ 성(姓). 《通志, 氏族略 4》簡氏, 姬姓, 晉大夫狐鞠居之後也.

【簡格 간각】 청(淸) 대돈원(戴敦元)의 시호(諡號).

【簡簡 간간】 ㉔ 성대한 모양. 《詩, 周頌, 執競》降福穰穰, 降福簡簡. <毛傳>簡簡, 大也. /北周, 庾信《登歌》威儀

簡簡, 鐘鼓喤喤. ㉕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한 모양. 《淮南子, 時則訓》優優簡簡, 百怨不起. <高誘注>優簡, 寬舒之貌. /清, 龔自珍《送廣西巡撫梁公序 3》公有肅德, 其躬頹頹, 其行簡簡, 其聲無聲, 其言明且淸.

【簡勘 간감】 검사함. 심의함. /明, 寓山居士《魚兒佛, 3齋》以此陰司所定功罪, 俱送來我這裏簡勘, 大凡有片念靈通, 就許他同歸佛會.

【簡鑑 간감】 똑똑히 살핌. 명찰(明察)함. /南朝梁, 江淹《蕭相國讓進爵爲王表》執爲守約之志, 既謝簡鑒, 避賢辭智之請, 終無開允.

【簡去 간거】 골라냄. 제거함. /北魏, 賈思勰《齊民要術, 種紅藍花梔子》使甚細, 簡去碎者. 《明史, 陳九川傳》會天方國貢玉石, 九川簡去其不堪者.

【簡倨 간거】 건방짐. 교만함. /唐, 段成式《酉陽雜俎續集, 支諾臬下》然陟竟以簡倨恃才, 常爲持權者所忌. /宋, 周輝《淸波雜志 8》一日國主開宴, 立妓於前, 歌所贈郵亭一夜眠之詞, 毅大慚沮, 滿引致醉, 頓失前日簡倨之容.

【簡舉 간거】 ㉔ 간단하면서도 주도면밀함. 《宋書, 王弘傳》高祖因宴集, 謂羣公曰, 我布衣, 始望不至此. 傅亮之徒並撰辭, 欲盛稱功德, 弘率爾對曰, 此所謂天命, 求之不可得, 推之不可去. 時人稱其簡舉. 《北齊書, 李繪傳》素長筆札, 尤能傳受, 緝綴詞議, 簡舉可觀. ㉕ 직받함. /明, 劉若愚《酌中志, 累臣自敘略節》[王體乾]知爲疊臣簡舉, 甚銜之.

【簡健 간건】 = 簡勁. /宋, 朱翌《猗覺寮雜記, 下》班孟堅叢史記冗語極簡健. /明, 郎瑛《七修類稿, 詩文 1, 各文之始》題跋, 漢晉諸集未載……其義不可墮入窠臼, 其辭貴乎簡健峭拔.

【簡儉 간검】 ㉔ 검소함. 《晉書, 元帝紀》帝性簡儉冲素, 容納直言, 虛己待物. /宋, 王謙《唐語林, 補遺 1》李衛公性簡儉, 不好聲妓, 往往經旬不飲酒. ㉕ 정사(政事)가 번거롭거나 가혹하지 않음. 《新唐書, 李自良傳》居治九年, 舉不愆法, 簡儉易循, 民不知有軍, 上下諧附.

【簡格 간격】 병기(兵器)를 담아두는 도구. 簡은 쇠뇌와 쇠뇌의 화살을 담은 대(臺)이고 格은 칼과 검을 두는 대이다. 《墨子, 備城門》堞堞高六尺, 部廣四尺, 皆爲兵弩簡格. <孫詒讓問詁>說文竹部云, 簡, 所以盛弩也. 史記索隱引周成雜字云, 格, 鼓閣也. 畢云, 簡同闌.

【簡簡 간격】 가로막힘. 격리됨. /南朝梁, 任昉《王文憲集序》公生自華宗, 世務簡簡.

【簡缺 간결】 ㉔ 소략하고 결여됨. 簡闕. /晉, 何琦《請修五嶽祠》而山川大神, 更爲簡缺, 禮俗糝紊, 人神雜擾, 公私奔蹙, 漸以繁滋. ㉕ 청대(淸代)에 직무가 간단하고 낮은 관직을 이르던 말. 《淸會典事例, 吏部處分例, 京官保舉》各該堂官, 率徇情取悅, 以繁缺保送者多, 而簡缺及留部者少.

【簡潔 간결】 = 簡潔의 ㉔. /南朝宋, 顏延之《陶徵士誄》廉深簡潔, 貞夷粹溫.

【簡潔 간결】 ㉔ 맑고 깨끗함. 또는 처세가 청백(淸白)함을 이르는 말. 簡潔. 《南史, 王思遠傳》思遠立身簡潔, 諸客有詣己者, 覘知衣服垢穢, 方便不前, 形儀新楚, 乃與促膝. 雖然, 及去之後, 猶令二人交帶拂其坐處. 《舊唐書, 盧元輔傳》元輔自祖至曾, 以名節著於史冊, 元輔簡潔貞方, 綽繼門風. ㉕ 간명하면서도 요령이 있음. /宋, 蘇轍《商論》商人之詩驗發而嚴厲, 其書簡潔而明肅. /元, 劉壘《隱居通議, 詩歌 3》此獨簡潔峻峭, 而悠然深味, 不見其際.

【簡勁 간경】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음. 簡健. /明, 李東陽《羅公墓誌銘》爲文務簡勁, 詩亦脫綺靡. /清, 周亮工《南昌

先生四部稿序》爲八家者，而八家醇潔簡勁之風反至代受詛呵。

【簡徑 간경】 간단 명료하고 솔직 담백함. /宋, 蘇軾《論設法差雇利害起請畫一狀》法不簡徑, 使姦吏小人, 得以伸縮. 《朱子語類 39》此古注說得甚好, 又簡徑.

【簡卿 간경】 자(字). ㉠송(宋) 왕안거(王安居)의 자. ㉡청(淸) 용공연(龍孔然)의 자.

【簡敬 간경】 ㉠경의(敬意)를 표하는 예의를 생략함. /唐, 牛僧孺《周秦行紀》妾故漢文君母, 君唐朝名士, 不相君臣, 幸希簡敬, 便上殿來見. ㉡청(淸) 정조락(程祖洛)의 시호(諡號).

【簡敬臨 간경림】 청(淸) 호남(湖南) 장사(長沙) 사람. 본래 이름은 계림(桂林). 함풍(咸豐) 연간에 태평군(太平軍) 진압에 참여하여 구주진 총병(衢州鎮總兵)에 올랐고 동치(同治) 연간에 회민(回民)의 봉기를 진압하다가 전사하였다. 《湘軍記 18》

【簡稽 간계】 대조 검토함. 고찰함. 《周禮, 夏官, 大司馬》簡稽鄉民, 以用邦國. 《鄭玄注》簡謂比數之, 稽猶計也. 《管子, 問》時簡稽帥馬牛之肥瘠, 其老而死者皆舉之. 《尹知章注》常時簡稽考之, 以知其能不. /唐, 元稹《楊嗣復授尚書兵部郎中制》爾其試守茲任, 爲予簡稽, 苟能修明, 旋議超陟.

【簡桂林 간계림】 청(淸) 간경림(簡敬臨)의 본래 이름. 【簡古 간고】 간단하고 예스러운. /唐, 韓愈《王公神道碑銘》翔於郎署, 騫於禁密, 發帝之令, 簡古而蔚. /宋, 蘇軾《書楞伽經後》楞伽義趣幽眇, 文字簡古.

【簡固 간고】 간단하고 비루함. /唐, 司空圖《將儒》嗟乎, 後之爲儒, 其力淺羸矣, 簡固以自持, 窘默而多□.

【簡鼓院 간고원】 송대(宋代)에 문하성(門下省)에 설치된 등문검원(登聞檢院)과 등문고원(登聞鼓院)을 아울러 이르는 말. 관원이나 사민(士民)의 장주(章奏)와 표소(表疏)의 수리(受理)를 담당하였다. /宋, 李綱《建炎進退志總疏, 上之上》今艱難之際, 四方休戚利害日欲上聞, 而士民之願效其智慮尤多. 陛下即位大位已踰月, 而簡鼓院猶未置, 恐非所以通下情而急先務者. 《宋史, 職官志 1》

【簡功 간공】 ㉠공적을 심사함. 《孔叢子, 問軍禮》有司簡功行賞, 不稽于時. 其用命者, 則加爵受賜于祖尊之前. ㉡공리(功利)를 가볍게 여김. 《戰國策, 燕策 3》論不修身, 義不累物, 仁不輕絕, 智不簡功. 《鮑彪注》簡, 猶棄也. /漢, 劉向《新序, 雜事 3》諺曰, 仁不輕絕, 知不簡功. 簡功棄大者, 仇也.

【簡寡 간과】 간략함. 또는 희소함. 《後漢書, 光武帝紀下》時兵革既息, 天下少事, 文書調役, 務從簡寡, 至乃十存一焉. 《新唐書, 奸臣傳 上, 李林甫》故事, 宰相皆元功盛德, 不務權威, 出入騎從簡寡, 士庶不甚引避.

【簡曠 간광】 구속받지 않고 활달함.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文學》裴成公作崇有論. 《劉孝標注》尚書令王夷甫講理而才虛, 散騎常侍戴輿以學道爲業, 後進庚敷之徒, 皆希慕簡曠. /宋, 歐陽脩《江鄰幾墓誌銘》其爲人外若簡曠, 而內修飾.

【簡較(校) 간교】 대조하여 조사함. 사찰함. 《二刻拍案驚奇 13》明日早起來, 區區家務, 簡較莊租簿書, 分毫不爽. /淸, 錢謙益《奉謁少師高陽公于里第感舊述懷詩》入郊先問躬耕地, 簡較秋原幾樹桑. /淸, 黃六鴻《福惠全書, 荒政, 積貯》委社司簡校, 吏不得操.

【簡較御史 간교어사】 진대(晉代) 어사(御史)의 하나. /淸, 梁章鉅《稱謂錄, 御史古稱, 簡較御史》叩鉢察官職攷, 魏中丞屬有殿中侍御史, 晉中丞屬有侍御史所掌十三曹, 復置

簡較御史及制防御史.

【簡久 간구】 간이(簡易)하면서 오래 지속됨. 《文選, 沈約, 齊故安陸昭王碑文》天經地義之德, 因心必盡, 簡久遠大之方, 率由斯至. 《李善注》乾以易知, 坤以簡能. 易則易知, 簡則易從. 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 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簡求 간구】 가려서 찾음. 《後漢書, 皇后紀序》自古雖主幼時艱, 王家多釁, 必委成冢宰, 簡求忠賢, 未有專任婦人, 斷割重器. /宋, 曾鞏《回人賀授史館修撰狀》懼莫副於簡求, 方內懷於兢愧.

【簡闕 간결】 =簡缺의 ㉠. 《宋書, 禮志 4》而山川大神, 更爲簡闕, 禮俗頽紊, 人神雜擾, 公私奔蹙, 漸以滋繁.

【簡貴 간귀】 오만하고 고귀함.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傷逝》王子敬與羊綏善, 綏淸淳簡貴, 爲中書郎, 少亡. 《新唐書, 李勉傳》張嘉貞爲益州都督, 性簡貴, 接部刺史倨甚.

【簡圭 간규】 큰 홀(笏). 《淮南子, 說山訓》周之簡圭, 生於垢石. 《高誘注》簡圭, 大圭. 美玉出於石中, 故曰生垢石.

【簡劇 간극】 간단함과 번거로움. /唐, 白居易《陳中師除太常少卿制》官無卑崇, 事無簡劇, 如玉在佩, 動必有聲, 爲時所稱. /明, 文徵明《敍送周君天保》然縣有遠近, 地有厚薄, 事有簡劇.

【簡克己 간극기】 송(宋) 광주(廣州) 남해(南海) 사람. 장식(張拭)의 문인(門人). 진지(眞知)와 실천을 중시하였다. 《宋元學案 71》

【簡記 간기】 문서. 장부. 《禮記, 王制》大史典禮, 執簡記, 奉諱惡. 《鄭玄注》簡記, 策書也. 《陳澧集說》國有禮事, 則豫執簡策, 記載所當行之禮儀.

【簡棄 간기】 가려내어 없앴. /晉, 葛洪《抱朴子, 交際》或有矜其先達, 步高視遠, 或遺忽陵遲之舊好, 或簡棄後門之類味. /唐, 韓愈《上賈滑州書》簡棄詭說, 保任皇極.

【簡能 간능】 ㉠간이(簡易)로써 일을 이룸. 《易, 繫辭上》乾以易知, 坤以簡能. 《韓康伯注》天地之道, 不爲而善始, 不勞而善成, 故曰易簡. 《朱熹本義》坤順而靜, 凡其所能, 皆從乎陽而不自作, 故爲以簡而能成物. /唐, 白居易《禮部試策第一道》夫先王酌教本, 提政要, 莫先乎任土辨物, 簡能易從, 然後立爲大中, 垂之不朽也. ㉡재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함. 《文選, 張衡, 東京賦》因進距衰, 表賢簡能. 《薛綜注》簡錄其能番. 《後漢書, 方術傳 上, 謝夷吾》令班固爲文薦夷吾曰……尋功簡能, 爲外臺之表.

【簡斷 간단】 유능하고 노련한 모양. 《紅樓夢, 61回》一面又奉承他辦事簡斷, 一面又講述他母親素日許多不好.

【簡短錄 간단록】 명(明)의 소보(邵寶)가 지은 책. 12권. 1~10권은 오경(五經)을, 11~12권은 사서(四書)를 각각 해설하였다. 《四庫提要, 經, 五經總義類》

【簡達 간단달】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충분히 통함. /唐, 常袞《授鄭叔則吏部員外郎制》省理辨疑, 時稱簡達.

【簡淡 간단담】 소박하고 담박함. 《南史, 謝弘微傳》弘微與琅邪王惠·王球並以簡淡稱. /宋, 陸游《幽興詩》身閑詩簡淡, 心靜夢和平.

【簡澹 간단담】 소박하고 담박함. 《舊唐書, 良吏傳 下, 閻濟美》所至以簡澹爲理, 兩地之人, 常賦之外, 不知其他. 《資治通鑑, 唐肅宗乾元元年》張鎰性簡澹, 不事中要.

【簡堂 간단당】 자호(字號). ㉠청(淸) 윤경(惲敬)의 호. ㉡청 지유곤(遲維坤)의 자. ㉢청 여배경(黎培敬)의 자.

【簡當 간단당】 간단하고 알맞음. /宋, 孫奕《履齋示兒編, 詩說, 康節詩無施不可》康節先生六言, 四賢吟云, 彥國之言

鋪陳，晦叔之言簡當。/金，王若虛《論語辨惑序》晦庵刪取衆說，最號簡當，然尙有不安及未盡者。

【簡代 간대】 교체함. 《書，多方》乃惟成湯，克以爾多方，簡代夏作民主. <俞樾平議>簡固訓大，然大代夏作民主，殊爲無義. 皋陶謨，笙鏞以間，枚傳曰，間，迭也. 簡與間古字通用，簡代夏作民主謂迭代夏作民主也.

【簡徒 간도】 부하 병졸을 검열함. 《漢書，刑法志》連帥比年簡車，卒正三年簡徒，羣牧五載大簡車徒.

【簡獨 간독】 단독(單獨). 홀몸. 《宋書，王弘傳》小民自非超然簡獨，永絕塵垢者，比門接棟，小以爲意，終自聞知，不必須日夕來往也.

【簡牘 간독】 글씨를 쓰는 데 사용된 얇은 대쪽이나 나무쪽. 또는 글씨를 쓰는 용품을 두루 이르는 말. 《藝文類聚 58》後漢書：王充於宅內門戶楹柱，各置筆硯簡牘，見事而作，著論衡八十五篇. /晉，杜預《春秋經傳集解序》諸侯亦各有國史，大事書之於策，小事簡牘而已. /唐，黃滔《魏侍中諫獵賦》文高而簡牘增煥，思苦而煙霞動色. ②문서·편지·서적 따위를 이르는 말. /南朝梁，蕭統《文選序》若斯之流，又亦繁博，雖傳之簡牘，而事異篇章，今之所集，亦所不取. /北齊，顏之推《顏氏家訓，慕賢》及西臺陷歿，簡牘湮散，丁亦尋卒於揚州. 《舊唐書，韋元甫傳》元甫精於簡牘，錫詳於訊覆.

【簡懶 간라】 게으름. 대만함. /宋，蘇軾《與李之儀書》辱書多矣，無不達者，然不一答，非特衰病簡懶之過，實以罪垢深重，不忍更以無益寒溫之問玷累知交.

【簡落 간락】 서책 따위가 낡아서 떨어져 나감. /北周，庾信《周大將軍聞喜公柳遐墓誌銘》書埋簡落，琴覆弦寬.

【簡落狐狸 간락호리】 여우와 살쥬이를 붙잡음. 간사한 무리들을 제재함을 비유한다. 落은絡과 통용. 《後漢書，酷吏傳，陽球》前雖糾誅王甫·段熲，蓋簡落狐狸，未足宣示天下. 願假臣一公，必令豺狼鴟梟各服其辜. /清，黃宗羲《徐公神道碑銘》公以國家之敗由官邪也，方欲條品人物，簡落狐狸，易危亡之轍.

【簡略 간략】 ①꼼꼼하지 못하고 어설피름. 《後漢書，劉寬傳》寬簡略嗜酒，不好盥浴，京師以爲諺. 《三國志，蜀志，蔣琬傳》東曹掾楊戲素性簡略，琬與言論，時不應答. ②생략됨. 간단함. 《後漢書，宣秉傳》務舉大綱，簡略苛細百僚敬之. 《宋書，沈攸之傳》時四方皆已平定，徐州刺史薛安都據彭城請降，上雖相酬許，而辭旨簡略.

【簡亮 간량】 ①정직함. 《周書，劉璠傳》在職清白簡亮，不合於時，左遷同和郡守. ②간단 명료함. 간명함. /宋，洪邁《容齋四筆，人爲度哉》孔聖既已發之於前，孟子知言之要，續爲之說，故簡亮如此.

【簡諒 간량】 소박하고 정직함. /明，張居正《賀少司寇少崖傳公三品奏最序》楚之有江·漢·衡·巫，山磅礴而水澆湃，故其人多任率簡諒，有礪阿侗儻之概. 「校武稟禽.

【簡力 간력】 힘을 겨룸. 《漢書，揚雄傳下》簡力狡獸.

【簡連 간련】 오만한 모양. 《荀子，非十二子》吾語汝學者之寬容，其冠絕，其纒綵，其容簡連. <楊倞注>簡連，傲慢不前之貌.

【簡練 간련】 ①선발하여 훈련함. 《呂氏春秋，孟秋》選士厲兵，簡練桀儻. 《漢書，息夫躬傳》簡練戎士，繕修干戈. ②간추리고 다듬음. 또는 정밀하게 연마함. 《戰國策，秦策 1》乃夜發書，陳篋數十，得太公陰符之謀，伏而誦之，簡練以爲揣摩. <姚宏注>簡，汰也，練，濯，濯滌. /漢，王充《論衡，量知》夫儒生之所以過文吏者，學問日多，簡練其性，雕琢其材也. ③정명(精明)하고 숙련됨. /漢，陳琳《爲袁紹檄豫州》

方畿之內，簡練之臣，皆垂頭搨翼，莫所憑恃. /三國蜀，諸葛亮《彈廖立表》兵衆簡練，部伍分明. ④간단하고 정련(精練)됨. 간결하고 세련됨. /清，袁枚《隨園詩話 5》老年之詩多簡練者，皆由博返約之功. /清，章炳麟《論說》別錄署禮記亦有通論，不專以題名爲質，其辭精微簡練，本之名家，與縱橫異軌.

【簡練揣摩 간련체마】 깊이 헤아리고 연구함. 《戰國策，秦策 1》簡練以爲揣摩. /明，王世貞《藝苑卮言 1》〔徐禎卿〕又曰，朦朧萌折，情之來也……簡練揣摩，思之約也.

【簡廉 간렴】 대체(大體)에 힘쓰면서도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음. 《書，皋陶謨》直而溫，簡而廉. <孔傳>性簡大而有廉隅. <孔穎達疏>志遠者遺近，務大者輕細，弘大者失于不謹，細行者不修廉隅，故簡大而有廉隅乃爲德也. 《舊唐書，路嗣恭傳論》路嗣恭從微至著，執法簡廉.

【簡令 간령】 단정하고 훌륭함. /南朝宋，劉義慶《世說新語，品藻》撫軍問孫興公，劉眞長何如. 曰，清蔚簡令.

【簡禮 간례】 ①예의를 소홀히 함. 예의에 벗어남. 《淮南子，人間訓》令尹子國啜羹而熱，投扈漿而沃之……子朱曰，令尹輕行而簡禮. /清，吳敏樹《與楊性農書》此吾友也，能好善者也，其官位又非驟高，不至簡禮於我，其有他故焉，未可以是非而棄之也. ②간단한 예의. /晉，陸機《弔魏文帝文》既歸古以遺累，信簡禮而薄葬. /明，沈德符《野獲編補遺，宮闈，妃諡》憲宗雖嬖萬氏，而於紀妃猶備禮不少貶……非如嘉靖末年，動有久待之嫌，因立簡禮於所生.

【簡老 간로】 서화(書畫)의 필법이 간략하고 노련함. /清，梁紹壬《兩般秋雨齋隨筆，徐文長》又曾于蕭山王氏見所藏文長小像一幅……書法蒼逸，畫亦簡老.

【簡勞 간로】 공로를 조사함. /南朝宋，傅亮《爲宋公求加贈劉前車表》念功簡勞，義深追遠.

【簡料 간료】 선발함. 《新唐書，邢文偉傳》皇帝簡料英俊，自庶子至司議·舍人·學士·侍讀，使佐殿下，成就聖德.

【簡陋 간루】 간단하고 초라함. 완비하지 못함. /宋，曾鞏《廣德軍重修鼓角樓記》而門閤隘庫，樓觀弗飾……弊在簡陋，不中度程. /宋，葉適《煙霏樓記》然而州無城堞，市無塵肆，屋無樓觀，佳卉良木不植，公私一切簡陋.

【簡陵 간릉】 당 의종(唐懿宗)의 능. 섬서성(陝西省) 부평현(富平縣)에 있다. 《新唐書，僖宗紀》乾符元年二月甲午，葬昭聖恭惠孝皇帝于簡陵. 《新唐書，地理志 1》

【簡慢(嫚) 간만】 대만하여 소홀히 함. 《管子，八觀》禁罰威嚴，則簡慢之人整齊. 《呂氏春秋，孝行》今有人於此，行於親重，而不簡慢於輕疏. 《漢書，五行志，中之下》不聽諫謀，簡慢大異. <顏師古注>簡慢大異，謂不憂穀洛.

【簡命 간명】 선발하여 임명함. /元，柯丹丘《荆釵記，堂試》簡命分專邦甸，報國存心文獻. /明，李東陽《送顧天錫員外審刑山西詩》謀謀內朝佐，簡命諸曹臣.

【簡明 간명】 간단 명료함. /宋，洪邁《容齋隨筆，解釋經旨》解釋經旨，貴於簡明，惟孟子獨然. /清，平步青《霞外攬屑，時事，謝丘之訟》卷爛無明文，別具簡明黏單.

【簡侮 간모】 업신여김. 경멸함. 《韓非子，亡徵》簡侮大臣，無禮父兄，勞苦百姓，殺戮不辜者，可亡也.

【簡募 간모】 선발하여 모집함. 《吳子，圖國》簡募良材，以備不虞. 《後漢書，朱儁傳》令過本郡簡募家兵及所調，合五千人，分從兩道而入.

【簡穆 간목】 ①간결하고 차분함. /晉，陶潛《晉故征西大將軍長史孟府君傳》太傅河南褚裒，簡穆有器識，時爲豫章太守. ②시호(諡號). ①남조 송(南朝宋) 하상지(何尚之)의 시호. ②남조 제(南齊朝) 왕승건(王僧虔)의 시호.

【簡妙 간묘】간략하면서도 교묘함. 簡勝. /宋, 唐子西《語錄》如桃源記言, 尚不知有漢, 無論魏晉. 可見造語之簡妙. /明, 謝榛《四溟詩話 3》凡襲古人句, 不能翻意新奇, 造語簡妙, 乃有愧古人矣.

【簡誣 간무】잡보고 속임. 《漢書, 孔光傳》天左與王者, 故災異數見, 以謹告之, 欲其改更. 若不畏懼, 有以塞除, 而輕忽簡誣, 則凶罰加焉, 其至可必. <顏師古注>言輕忽天戒, 簡傲欺誣者, 其罰必至.

【簡嘿 간묵】=簡黙. /清, 曹寅《送孫伯琴之揚州詩》僮儻風流妙說詩, 孫郎簡嘿亦吾師. /清, 蒲松齡《聊齋志異, 蕭7》即喚婢請六娘子來, 久之不出, 女入曳之以至, 俯首簡嘿, 不似前此之諧.

【簡墨 간묵】문서. 또는 편지. /漢, 陳琳《檄吳將校部曲文》孫權小子, 未辨菽麥, 要領不足以膏齊斧, 名字不足以洩簡墨. /宋, 曾鞏《上歐陽學士第一書》今者乃敢因簡墨, 布腹心於執事.

【簡墨尊俎 간묵준조】서신을 왕래하고 술을 마시며 어울림. /宋, 文瑩《玉壺清話 3》國初太宗建太寧軍節, 公謁之, 傾意投接, 爲掌書記, 游從觴詠, 情禮深原. 公長於太宗, 簡墨尊俎, 常以兄呼之.

【簡黙 간묵】침착하고 과묵함. 簡嘿.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識鑑》皆曰山少傅乃天下名言. <劉孝標注>竹林七賢論, 山濤因論孫吳用兵本意. 濤爲人常簡黙, 蓋以爲國者不可以忘戰, 故及之. /宋, 葉夢得《石林燕語 10》夷叟簡黙寡言笑, 雖家居獨坐一室, 或終日不出.

【簡聞 간문】자세히 듣지 못함. 《大戴禮記, 保傳》簡聞小誦, 不傳不習. <俞樾平議>簡聞者, 聞之簡而不詳也.

【簡文順王后 간문순왕후】진(晉) 간문제(簡文帝)의 왕후인 왕간희(王簡姬)를 이르는 말.

【簡文帝 간문제】①진(晉)나라 8대 황제. →司馬昱. ②남조 양(南朝梁) 제2대 황제. →蕭綱.

【簡微 간미】하찮은 물건을 이르는 말. 《史記, 貨殖傳》胃脯, 簡微耳, 濁氏連騎.

【簡民 간민】①게으른 백성. 《司馬法, 天子之義》古者, 賢王明民之德, 盡民之善, 故無廢德, 無簡民. ②청(淸) 여간(黎簡)의 자(字).

【簡朴 간박】간단하고 순박함. 간단하고 소박함. 《後漢書, 魏霸傳》和帝時爲鉅鹿太守, 以簡朴寬恕爲政. /宋, 陸游《遊山西村詩》簞鼓追隨春社近, 衣冠簡朴古風存.

【簡樸 간박】간단하고 소박함. 《後漢書, 趙咨傳》棺槨之造, 自黃帝始, 爰自陶唐, 逮於虞夏, 猶尚簡樸, 或瓦或木, 及至殷人而有加焉. /宋, 葉適《平江縣王文正公祠堂記》湖外俗簡樸畏事, 而平江喜訟善逃.

【簡薄 간박】①부족함. 미약함. /宋, 葉適《潼川府修城記》然民離於兵久而膂力積銷弱, 地離於兵久而預防益簡薄, 及奸豪窺度, 則不足支倉猝有事之用. 《紅樓夢, 7回》平兒遂自作主意, 拿了一匹尺頭, 兩個狀元及第的小銀子, 交付來人送過去, 鳳姐還說太簡薄些. ②싫어함. 또는 경시함. /宋, 葉適《郭府君墓誌銘》謂其興隆, 有所歆艶, 謂其衰壞, 有所簡薄, 蓋皆過矣. /明, 沈德符《野獲編, 言事, 郭希顏論廟制》時上未有意禘仁宗, 而希顏窺見上旨, 篤念孝烈, 必欲先附, 而宏正兩朝, 又上所簡薄, 因妄意逢君, 必欲於孝武二廟中祧其一.

【簡拔 간발】①선발함. 선택함. /三國蜀, 諸葛亮《前出師表》此皆良實, 志慮忠純, 是以先帝簡拔, 以遺陛下. /宋, 司馬光《涑水記聞 10》上嘗從容問度, 用人資序與才器孰先. 度對曰, 天下無事則循守資序, 有事則簡拔才器. ②간고(簡

古)하고 우뚝함. 시문(詩文)의 풍격이 고박(古朴)하고 굳건함을 이른다. /宋, 惠洪《冷齋夜話, 換骨奪胎法》顧況詩曰, 一別二十年, 人堪幾回別. 其詩簡拔而意精確.

【簡發 간발】목표물을 가려 발사함. 《文選, 左思, 魏都賦》控絃簡發, 妙擬更羸. <李善注>謂擇處而發也.

【簡放 간방】①가려서 내보냄. 《北齊書, 後主紀》又詔掖庭·晉陽·中山宮人等及鄴下·并州太官官口二處, 其年六十已上及有癯患者, 仰所司簡放. ②청대(淸代)에 도부(道府) 이상의 지방관을 전서(銓敍) 절차를 거쳐 임명하던 일. /淸, 林則徐《奏參因循不振之鎮將分別勒令休致降補折》其所遺南澳鎮總兵員缺緊要, 並請旨迅賜簡放, 以重職守.

【簡芳 간방】명(明) 강서(江西) 상고(上高) 사람. 자는 덕형(德馨). 홍치(弘治) 연간의 진사(進士). 벼슬은 형부 주사(刑部主事)·병부 낭중(兵部郎中). 법 집행이 엄명하고 합당하였다. 《文肅文圭峰先生文集 30》

【簡白 간백】명(明) 예가대(倪可大)의 자(字).

【簡帛 간백】대쪽과 비단. 고대에 글씨를 쓰는 데 사용하였다. /淸, 章炳麟《文學總略》古者, 簡帛重煩, 多取記憶, 故或用韻文, 或用耦語, 爲其音節諧適, 易于口記, 不煩記載也.

【簡法 간법】①간요(簡要)한 법조문. 《晉書, 武帝紀》[泰始四年春正月]戊子, 詔曰……又律令既就, 班之天下, 將以簡法務本, 惠育海內. ②간요한 기술 방법. /淸, 薛福成《庸齋筆記, 軼聞, 聖武記》魏川楚教匪謀篇尙未盡善》史記樊·鄴·滕·灌諸傳, 另是一種體裁, 蓋諸人所經戰事不盡關係大局, 若必逐事而記之, 則太繁瑣, 故必立一簡法以綜貫之.

【簡僻 간벽】문자(文字)가 간고(簡古)하고 생소함. /淸, 王夫之《夕堂永日緒論外編》考工記, 乃制度式樣冊子……其中奇字, 乃三代時方言俗語, 愚賤通知者, 非此不足以定物料規制之準, 非故爲簡僻也.

【簡別 간별】심사하여 가림. 명확히 나누거나 구별함. 《後漢書, 楊賜傳》且欲切勅刺史二千石, 簡別流人, 各護歸本郡, 以孤弱其黨, 然後誅其渠帥, 可不勞而定. 《資治通鑑, 漢獻帝建安9年》乃請配悉出城中老弱以省穀, 簡別數千人, 皆使持白幡, 從三門並出降.

【簡兵 간병】병사를 정선(精選)함. 《左傳, 昭公18年》乃簡兵大蒐. <楊伯峻注>精選車徒兵, 將大檢閱, 大演習. /淸, 昭鍾《嘯亭雜錄, 孝感之戰》明故宿將, 談戰鬥事形狀如繪, 簡兵儲櫜, 咸如兵法, 非他人所易及者.

【簡甫 간보】송(宋) 조언약(曹彥約)의 자(字).

【簡輔 간보】명(明) 광서(廣西) 마평(馬平) 사람. 자는 여훈(汝欽). 정덕(正德) 연간의 진사(進士). 벼슬은 진주 판관(秦州判官). 의옥(疑獄)을 잘 판결하였다. 《萬姓統譜 81》

【簡卜 간복】택일(擇日)하고 점을 칠. 《北史, 盧伯源傳》時孝文帝將立馮后, 先問伯源, 請更簡卜.

【簡服 간복】무예를 훈련하여 숙달하게 함. 《國語, 吳語》夫申胥·華登簡服吳國之士於甲兵, 而未嘗有所挫也. <韋昭注>, 簡, 習也.

【簡夫 간부】자(字). ①송(宋) 석상지(石象之)의 자. ②송 진종이(陳從易)의 자. ③송 이종이(李宗易)의 자. ④금(金) 진약(秦略)의 자. ⑤청(淸) 왕약(王約)의 자.

【簡孚 간부】조사하여 확인함. 《書, 呂刑》五辭簡孚, 正於五刑. <孔傳>五辭簡核, 信有罪驗, 則正之於五刑.

【簡符 간부】칙명(勅命)으로 징집·조달하는 공문서. 《南史, 顧憲之傳》又被簡符, 前後累千, 符既既嚴, 不敢聞信.

【簡界 간비】가려서 줌. 간택하여 내려 줌. 《書, 多方》

簡界殷命,尹爾多方.〈孔傳〉天與我殷之王命,以正汝衆方之諸侯.〈蔡沈集傳〉簡擇界付殷命,以正爾多方也.《清史稿,世祖紀 2》反復思維,朕實不德.負上天之簡界,忝祖宗之寄托,虛太后教育之恩,孤四海萬民之望.

【簡備 간비】㉠똥달하고 완비함.《大戴禮記,文王官人》智氣簡備,勇氣壯直.〈盧辯注〉簡,通. /五代,王定保《唐摭言,敏捷》昭宗天復元年正旦,東內反正,既御樓,內翰維吳子華先至,上命於前跪草十餘詔,簡備精當,曾不頃刻.㉡방비를 소홀히 함.《淮南子,詮言訓》好勇則輕敵而簡備,自偵而辭助.

【簡查 간사】검사함. /明,馮夢龍《智囊補,雜智,猾吏》又聞某按院疑一吏書途中受賄,親自簡查,無跡而止.

【簡散 간산】조잡하고 산만함. /唐,陸龜蒙《復友生論文書》簡散澹誕,無所避諱.

【簡澁(澁) 간삽】문장이 간고(簡古)하고 분명하지 않음. /明,宋濂《深裏先生吳公私諡貞文議》斯文之正,非謂其富麗也,非謂其奇詭也,非謂其簡澁渙漫也. /明,方孝孺《贈鄭顯則序》天下之論文者,嗜簡澁則主於奇詭,樂敷暢則主於平易,二者皆非也.

【簡上 간상】청(淸) 사천(四川) 과현(巴縣) 사람. 자는 겸거(謙居). 호는 석호(石湖). 순치(順治) 연간의 거인(舉人). 벼슬은 강남 제독학정(江南提督學政). 저서:《四書彙解.《國朝耆獻類徵 207》

【簡濶 간색】간단하고 비루함. 정미(精美)하지 않음. /淸,梁紹壬《兩般秋雨齋隨筆,醋溜魚》西湖醋溜魚,相傳是宋五嫂遺製,近則工料簡濶,直不見其往處,然名留刀匕,四遠皆知.

【簡序 간서】선별하여 차례를 정함.《後漢書,順帝紀》[陽嘉元年十二月]辛卯,詔曰……其簡序先後,精覈高下,歲月之次,文武之宜,務存厥衷.

【簡恕 간서】너그럽고 어짊. /南朝宋,武帝《至江陵下書》夫去弊拯民,必存簡恕,捨網修綱,雖煩易理. /三國魏,劉劭《人物志,效難》或恐其過誤.〈劉昫注〉以簡恕取人.

【簡書 간서】고계(告誡)·책명(策命)·맹서(盟誓)·징소(徵召) 등의 일에 사용하는 문서. 또는 일반 문서를 이르는 말.《詩,小雅,出車》豈不懷歸,畏此簡書.〈朱熹集傳〉簡書,戒命也.《左傳,閔公元年》簡書,同惡相恤之謂也.請救邢以從簡書.《後漢書,方術傳 上,段翳》又有一生來學,積年,自謂略究要術,辭歸鄉里.翳爲合膏藥,并以簡書封於簡中,告生曰,有急發視之. /淸,惲敬《北山說》今日簡書曰某也稅於某,則驅車從之,明日簡書曰某也稅於某,則驅車從之.

【簡棲 간서】자(字). ㉠남조 양(南朝梁) 왕건(王巾)의 자. ㉡명(明) 전희언(錢希言)의 자.

【簡選 간선】㉠선별하여 임용함.《呂氏春秋,簡選》簡選精良,兵械銛利,令能將將之.《後漢書,朱儁傳》故相率厲,簡選精悍,堪能深入,直指咸陽.《宋書,五行志 2》去年秋冬,采擇卿校諸葛冲等女,是春五十餘人入殿簡選. ㉡여씨춘추(呂氏春秋) 중추기(仲秋紀)의 편명(篇名).

【簡泄 간설】대만하여 소홀히 함. /漢,賈誼《新書,大政 下》刑罰不可以慈民,簡泄不可以得士……故夫士者,弗敬則弗至.

【簡褻 간설】대만하여 소홀히 함. 알봄.《警世通言,俞伯牙摔琴謝知音》命童子點茶,茶罷,又命童子取酒共酌.伯牙道,借此攀話,休嫌簡褻. /明,吾丘瑞《運甓記,剪髮延賓》小弟聊備杯酒,爲兄解寒,只是荒齋簡褻,萬勿督過便了.

【簡省 ①간성 ②간생】①검사하여 살펴봄. /唐,元稹

《酬樂天東南行詩序》十三年,予以赦當遷,簡省書籍,得是八篇,吟歎方極,適崔果州使至. ②절약함. 또는 생략함.《後漢書,循吏傳,王景》景雖簡省役費,猶以百億計. /宋,蘇軾《郊祀奏議》天子出郊,兵衛不可簡省. /淸,梁章鉅《退庵隨筆,家禮 1》蓋以問名併入納采,而以納吉·請期併入納幣,已屬簡省之至.

【簡細 간세】사소함. 자질구레함. /明,歸有光《宋史論贊,張齊賢》其略於簡細,固亦宜然.

【簡世傑 간세걸】송(宋) 융흥부(隆興府) 진현(進賢) 사람. 자는 백준(伯俊). 융흥(隆興) 연간의 진사(進士). 벼슬은 포기 지현사(蒲圻知縣事)·하주 지주사(賀州知州事).《誠齋集 130,墓誌銘》

【簡少 간소】희소함. 또는 모자람. /明,陶宗儀《輟耕錄,黃河源》崑崙迤西,人簡少,多處山南. /淸,吳越《與妻書》子自思身材之短小,體氣之柔弱,精神之欠乏,飲食之簡少……疾病之時至,非較吾爲尤甚乎.

【簡召 간소】초야에 있는 사람을 예(禮)를 갖추어 불러서 임용함.《資治通鑑,晉簡文帝咸安元年》堅(苻堅)以關東初平,守令宜得人,令王猛以便宜簡召英俊,補六州守令,授訖,言臺除正.

【簡素 간소】㉠절약하고 소박함.《宋書,裴松之傳》松之年八歲,學通論語·毛詩,博覽墳籍,立身簡素.《舊唐書,唐臨傳》儉薄寡欲,不治第宅,服用簡素,寬於待物. ㉡고대에 문자를 쓰는 데 사용했던 대쪽과 비단. 또는 글씨를 쓰는 용품을 이르는 말. /北魏,酈道元《水經注,耒水》倫,漢黃門,順帝之世,擣故魚網爲紙,用代簡素,自其始也.《南史,文學傳論》暢自心靈,而宣之簡素,輪扁之言,未或能盡. /唐,柳宗元《王氏伯仲唱和詩序》由是正聲迭奏,雅引更和,播填篋之音韻,調律呂之氣候,穆然清風,發在簡素,文章之胃,曷能及茲. ㉢책을 이르는 말. →竹素.《文選,張協,雜詩 9》遊思竹素園,寄辭翰墨林.〈李善注〉風俗通,劉向爲孝成皇帝典校書籍,皆先書竹,爲易刊定,可繕寫者以上素也.今東觀書,竹素也. /唐,駱賓王《上克州刺史啓》賓王淹中故俗,體朴厚之弘規,稷下遺疇,陶禮義之餘化,頗游簡素,少閱縑緇. ㉣편지. 서신. /晉,陶潛《和郭主簿 2》檢素不獲展,厭厭竟良月.〈朱自淸陶詩的深度〉檢素即簡素,就是書信,檢素不獲展就是接不着你的信.

【簡疏 간소】소략(疏略)함. 신중하지 못함.《新唐書,張喜貞傳》性簡疏,與人無疑,內曠如也,或時以此失.

【簡率 간술】㉠소박하고 진솔함.《晉書,高密王泰傳》任眞簡率,每朝會,不識者不知其王公也.《北史,陽休之傳》簡率不樂煩職. ㉡간략하고 꼼꼼하지 않음. /五代,王定保《唐摭言,散序》案李肇舍人國史補曰,曲江大會比爲下第舉人,其筵席簡率,器皿皆隔山拋之. /宋,蘇軾《答錢濟明書》蒙令子惠書,回答簡率,一一封納,必不罪也.

【簡訟 간송】옥송(獄訟)을 줄임. 옥송을 감소시킴. /明,劉基《書蘇伯修御史斷獄記後》僕嘗往觀於牧民之以簡訟名者,之其庭,草生於階,視其几,塵積於牘.

【簡秀 간수】단정하고 청수(淸秀)함. /南朝宋,劉義慶《世說新語,品藻》時人道阮思曠,骨氣不及右軍,簡秀不如眞長,韶潤不如仲祖,思致不如淵源,而兼有諸人之美. /宋,葉紹翁《四朝聞見錄,姜夔題保母帖》文勢簡秀,亦類其父.

【簡授 간수】전서(銓敍)하여 벼슬을 제수함. /晉,傅玄《晉宗廟歌,文皇帝登歌》柔遠能邇,簡授英賢. /淸,薛福成《出使四國日記,光緒17年正月丙寅朔》有由侯伯等爵簡授頭二等公使者.

【簡脩 간수】 송(宋) 호종유(胡宗愈)의 시호(諡號).

【簡叔 간숙】 명(明) 요운재(姚允在)의 자(字).

【簡肅 간숙】 ①간약(簡約)하고 엄숙함. /唐, 鄭谷《贈富平李宰詩》簡肅諸曹事, 安閒一境人. 《舊唐書, 崔瓘傳》瓘到官, 政在簡肅, 恭守禮法. ②시호(諡號). ①남조 양(南朝梁) 서면(徐勉)의 시호. ②송(宋) 황중(黃中)의 시호. ③송 호헌(胡憲)의 시호. ④송 심복(沈復)의 시호. ⑤송 장대경(張大經)의 시호. ⑥송 정병(鄭丙)의 시호. ⑦송 임울(林栗)의 시호. ⑧원(元) 여유(呂流)의 시호. ⑨명(明) 구순(丘舜)의 시호. ⑩명 황가(黃珂)의 시호. ⑪명 주연(周延)의 시호. ⑫명 충정길(衷貞吉)의 시호. ⑬명 장부화(張敷華)의 시호. ⑭명 도교(屠僑)의 시호. ⑮명 방양영(方良永)의 시호.

【簡習 간습】 연습함. 훈련함. /漢, 王符《潛夫論, 勸將》器械不簡習, 將恩不素結, 卒然有急, 則吏以暴發虐其士, 士以所拙遇敵巧. /晉, 孫楚《爲石仲容與孫皓書》整治器械, 修造舟楫, 簡習水戰. 「有蔡搏.

【簡勝 간승】 = 簡妙. 《南史, 蔡廓傳》當今貞素簡勝, 唯

【簡視 간시】 관찰함. 검사함. 《三國志, 吳志, 陳表傳》初, 表所受賜復人得二百家……表簡視其人, 皆堪好兵, 乃上疏陳讓, 乞以還官, 充足精銳.

【簡試 간시】 인재를 가려 서임(敍任)하는 고시(考試). 《魏書, 前廢帝廣陵王紀》帝於顯陽殿簡試通直散騎常侍·散騎常侍·散騎侍郎·通直郎, 刺員非才, 他轉之.

【簡辰 간신】 날을 가림. 택일(擇日)함. /南朝宋, 謝莊《皇太子元服上皇太后表》練日簡辰, 顯備元服. /南朝梁, 王筠《昭明太子哀冊文》簡辰請日, 筮合龜貞.

【簡信 간신】 조사하여 확인함. 《史記, 周本紀》兩造具備, 師聽五辭, 五辭簡信, 正於五刑. 《裴駟集解》五辭簡核, 信有罪驗, 則正之于五刑矣.

【簡實 간실】 간요(簡要)하고 절실함. /宋, 羅大經《鶴林玉露 10》建炎中, 大駕駐維揚, 康伯可上中興十策……五請刪內侍百司州縣冗員, 文書務簡實, 以省財便事. /元, 劉壘《隱居通議, 文章 3》南渡前, 經義簡實典古, 有補世教, 豈若近世浮虛糜裂者所爲.

【簡心 간심】 관심을 둠. 유의함. /漢, 班固《奏記東平王蒼》〔將軍〕服膺六藝, 白黑簡心, 求善無厭. /漢, 樊準《上疏請興儒學》〔孝明皇帝〕庶政萬機, 無不簡心.

【簡深 간심】 간요(簡要)하면서도 심오함. /淸, 林紓《書黃生札記後》所謂宏潤簡深之文, 本括敘事論事而言, 若有聲之文, 言宏潤尚可, 言簡言深, 則與聲律無與.

【簡雅 간아】 간결하고 우아함. /宋, 葉適《太府少卿李公墓誌銘》公文出新意, 作生語, 緻密簡雅, 無刻露之態. /淸, 鈕琇《觚賸續編, 觀人之法》〔趙申喬〕手評所質之文, 亦甚簡雅.

【簡菴 간암】 자호(字號). ①명(明) 심찬(沈燾)의 호. ②淸(淸) 주종렴(周宗濂)의 자. ③淸 소일선(邵逸先)의 호. ④淸 달진(達眞)의 자. ⑤淸 장용경(張雍敬)의 호. ⑥淸 이도남(李圖南)의 호.

【簡約 간약】 절약함. 또는 생략됨. 《後漢書, 馬援傳》時皇太后躬履節儉, 事從簡約. /晉, 葛洪《抱朴子, 詰鮑》質素簡約者, 貴而顯之, 亂化侵民者, 黜而戮之. /淸, 梁章鉅《退庵隨筆, 讀經 2》儀禮不特經難讀, 卽注疏亦難讀, 鄭注簡約, 又多古語, 賈疏繁臆, 而傷於蕪蔓, 端緒亦不易尋.

【簡約詳核 간약상핵】 간단하고 상세함. /淸, 王韜《蘊牖餘談, 西儒實學》言輿地形質之學, 則有慕維廉之地理全志

上下編, 上編紀載時事, 析論情勢, 尤稱簡約詳核焉.

【簡陽 간양】 진대(晉代)에 둔 현(縣). 소재지는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횡현(橫縣) 남서쪽에 있었다. 《讀史方輿紀要, 廣西, 南寧府, 橫州, 簡陽廢縣》

【簡御 간어】 제왕이 열람하도록 가려 보냄. /北魏, 崔鴻《呈奏十六國春秋表》徒竊慕古人立言美意, 文致疏鄙, 無一可觀, 簡御之日, 伏深慚悸.

【簡嚴 간엄】 ①질박하면서도 근엄함. /宋, 戴埴《鼠璞, 十五國風二雅三頌》周·魯·商三頌, 以盛德成功爲主……周頌簡嚴, 商頌敷暢, 已非一體. /元, 劉壘《隱居通議, 文章 3》今徒以詭異險澁難讀爲工, 其於六經簡嚴易直之旨合乎否也. ②간약(簡約)하고 엄명(嚴明)함. 《宋史, 李及傳》及資質清介, 所治簡嚴. /明, 余繼登《典故紀聞 1》太祖謂臺省臣曰, 近代法令極煩, 其弊滋甚……今立法正欲矯其舊弊, 大概不過簡嚴, 簡則無出入之弊, 嚴則民知畏而不敢輕犯. 爾等其體此意.

【簡輿 간여】 당(唐) 온조(溫造)의 호(號).

【簡緣 간연】 ①속세와의 인연을 줄이고 세상일에 참여하지 않음. /宋, 晁迥《昭德新編》揚湯止沸, 不如徹薪, 制心息慮, 不如簡緣. ②淸(淸) 풍무(馮武)의 호(號).

【簡烈 간열】 한(漢) 공광(孔光)의 시호(諡號).

【簡閱 간열】 ①고찰함. 살펴봄. /漢, 桓寬《鹽鐵論, 刺復》計數不離於前, 萬事簡閱於心. 《宋書, 五行志 4》去年采擇良家子女, 露面入殿, 帝親簡閱, 務在姿色, 不訪德行. 《資治通鑑, 唐德宗建中3年》臬至洪州, 悉集將佐, 簡閱其才, 得牙將伊慎·王鏐等, 擢爲大將. ②검열함. 《南史, 韋瓘傳》還至廬陵, 聞侯景作逆, 便簡閱部下, 倍道赴援. 《舊唐書, 高祖紀》丙申, 幸宜州, 簡閱將士. ③골라서 씬. /宋, 歐陽脩《虞部員外郎呂師簡可比部員外郎制》豈夫訓練之未至, 將由簡閱之不精. 《資治通鑑, 後周太祖顯德元年》初, 宿衛之士, 累朝相承, 務求姑息, 不欲簡閱, 恐傷人情, 由是羸老者居多.

【簡詣 간예】 = 簡至. 《南史, 范縝傳》性質直, 好危言高論, 不爲士友所安. 唯與外弟蕭琛善, 琛名曰口辯, 每服縝簡詣. /宋, 陸游《齋中雜興十首以丈夫貴壯健修戚非朱顏爲韻 8》俊逸如伯渾, 簡詣如知幾.

【簡銳 간예】 정예(精銳) 병사를 골라서 씬. /明, 張居正《答宣大巡撫鄭范溪》彼敢來犯, 卽簡銳擊之, 若不來犯, 亦不必往討也.

【簡輿 간오】 간고(簡古)하고 심오함. /宋, 趙彥衛《雲麓漫鈔 10》古文簡輿, 學者當於聖人分上體貼, 方見得舜. /明, 胡應麟《少室山房筆叢, 史書佔畢 1》繹之精嚴簡輿, 淵乎左氏之法矣.

【簡傲(傲) 간오】 건방짐. 오만함. 《三國志, 蜀志, 簡雍傳》性簡傲跌宕. /唐, 玄奘《大唐西域記, 摩揭陀國上》而婆羅門居然簡傲, 垂帷以對, 終不面談. 《新唐書, 楊憑傳》性簡傲, 接下脫略, 人多怨之.

【簡傲絕俗 간오절속】 거만하여 세속을 초월함. /淸, 王夫之《薑齋詩話 3》亡友文小勇有句云, 人誰從問字, 風不可開門. 於江西宗派體中自居勝地, 而其荒涼寒苦之狀, 簡傲絕俗之致, 亦概可見矣.

【簡雍 간옹】 삼국시대 촉(蜀) 탁군(涿郡) 사람. 본성(本姓)은 경씨(耿氏)라고도 한다. 자는 헌화(憲和). 벼슬은 종사중랑(從事中郎)·소덕장군(昭德將軍). 유비(劉備)가 성도(成都)를 포위하였을 때 유장(劉璋)에게 항복을 권유하였다. 《三國志 38》

【簡緩 간완】 소략하고 느슨함. /晉, 葛洪《抱朴子, 行品》士有梗概簡緩, 言希貌樸, 細行闕漏, 不爲小勇……然而

膽勁心方, 不畏強禦.

【簡王 간왕】㉠주(周)나라 제23대 왕. →姬夷. ㉡발해(渤海)의 제9대 왕. 이름은 명충(明忠). 강왕(康王) 승린(高鄰)의 아들. 희왕(僖王) 언의(言義)의 아우. 연호는 태시(太始). 《新唐書 219》

【簡要 간요】㉠간단하고 요점이 있음. 간략하고 긴요함.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文學》南人學問, 清通簡要. /唐, 劉知幾《史通, 表曆》文尚簡要, 語惡煩蕪. ㉡생략함. 생략됨. 《世說新語, 儉嗇》司徒王戎既貴且富. <劉孝標注> 晉諸公贊, 戎性簡要, 不治儀望, 自遇甚薄. /唐, 白居易《三教論衡》要道者, 謂施少報多, 簡要之義也.

【簡要清通 간요청통】일 처리가 간단하고 요령이 있으며 명백하고 통달함.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賞譽》吏部郎闕, 文帝問其人於鍾會, 會曰, 裴楷清通, 王戎簡要, 皆其選也. /明, 何良俊《四友齋叢說摘鈔, 史 3》吏部諸公當日與天下士大夫相接, 古人云, 只須簡要清通, 何必插籬豎棘.

【簡用 간용】선발하여 임용함. 《後漢書, 樊儵傳》郡國舉孝廉, 率取年少能報恩者, 耆宿大賢多見廢棄, 宜勅郡國簡用良俊. /元, 羅貫中《風雲會, 2折》我朝有殿前都點檢趙匡胤, 文武全才, 乃先帝簡用之臣.

【簡愿 간원】순박하고 성실함. /唐, 李虞仲《授王政雅等兵部郎中制》爾等皆以簡愿端明, 脩詞踐行.

【簡遠 간원】㉠간고(簡古)하고 심원(深遠)함. /唐, 元稹《唐故工部員外郎杜君墓係銘》蘇子卿·李少卿之徒, 尤工爲五言. 雖句讀文律各異, 雅·鄭之音亦雜, 而辭意簡遠, 指事言情, 自非有爲而爲, 則文不妄作. /清, 沈德潛《說詩碎語, 上》淵明停雲·時運等篇, 清腴簡遠, 別成一格. ㉡소박하고 청고(淸高)함. /宋, 葉適《葉君宗儒墓誌銘》父良臣, 有塵外趣, 雖在田野, 而散朗簡遠, 言不及利, 對之泊如也. /明, 宋濂《天竺靈山教寺慈光圓昭法師塔銘》法師風度簡遠, 不妄言笑. 「이름.

【簡遠堂 간원당】명(明) 담원춘(譚元春)의 서실(書室)

【簡允 간원】간단하고 합당함. 《隋書, 蘇威傳》所修格令章程, 並行於當世, 然頗傷苛碎, 論者以爲非簡允之法.

【簡衣 간의】간소한 복장. /漢, 袁康《越絕書, 外傳記寶劍》王取純鈞, 薛燭聞之, 忽如敗, 有頃, 懼如悟, 下陸而深惟, 簡衣而坐望之.

【簡懿 간의】시호(諡號). ㉠북위(北魏) 설충(薛聰)의 시호. ㉡남조 진(南朝陳) 원추(袁樞)의 시호. ㉢금(金) 한기선(韓企先)의 시호.

【簡儀親王 간의친왕】청(淸) 덕패(德沛)의 봉호(封號).

【簡夷 간의】평이함. /淸, 黃景仁《贈陳秋士詩》君性更簡夷, 談言每微中.

【簡弛 간의】소홀하고 해이함. 《新唐書, 隱太子建成傳》資簡弛, 不治常檢, 荒色嗜酒, 敗壞無度, 所從皆博徒大俠.

【簡易 간의】㉠간단하고 쉬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음. 《墨子, 非命 中》惡恭儉而好簡易, 貪飲食而惰從事. 《史記, 劉敬叔孫通傳》高帝悉去秦苛儀法, 爲簡易. /唐, 封演《封氏聞見記, 文字》于時獄官事繁, 篆書不給, 御史程邈有罪繫雲陽獄中, 變篆爲隸, 以從簡易. ㉡소박하고 평이함. 《東觀漢記, 馬援傳》援外類個儻簡易而內重. 《宋書, 武帝紀 下》性尤簡易, 常著連齒木屐, 好出神虎門逍遙, 左右從者不過十餘人. ㉢시실이 미비함. /漢, 荀悅《漢紀, 文帝紀 下論》漢初, 國家簡易, 制度未備. /唐, 柳宗元《凌助教蓬屋題詩序》棟宇簡易, 僅除風雨.

【簡彝 간의】간단하고 쉬움. 간이함. 《國語, 周語 中》

棄袞冕而南冠以出, 不亦簡彝乎. /淸, 俞樾《古書疑義舉例, 兩字一義而誤解例》簡·彝二字同義. 爾雅釋詁, 夷, 易也. 彝與夷古字通. 簡彝, 卽簡易也.

【簡翼 간의】송(宋) 장조(張璪)의 시호(諡號).

【簡認 간인】감사하여 식별함. 《水滸傳, 103回》衆人在營後牆外照着血污衣服, 細細簡認, 件件都是王慶的.

【簡仁瑞 간인서】명(明) 사천(四川) 영현(榮縣) 사람. 자는 계린(季麟). 승정(崇禎) 연간의 거인(舉人). 벼슬은 평량 지부사(平涼知府事). 이자성(李自成)의 군대를 막다가 고을 백성들이 항복을 원하자 자결하였다. 《明史 294》·《萬斯同明史 382》·《明史稿 276》·《明末忠烈紀實 2》·《小腆紀年 1》

【簡逸 간일】간약(簡約)하고 고상함. /明, 沈德符《野獲編, 玩具, 舊畫款識》見一破碎手卷……此必醉仕女也, 衣摺簡逸, 筆法生動, 有吳帶當風遺意. 「諡」.

【簡一先生 간일선생】명(明) 안소(顏素)의 사시(私

【簡任 간임】선발하여 임명함. 《後漢書, 申屠剛傳》皇太子宜時就東宮, 簡任賢保, 以成其德. /明, 宋濂《毛公神道碑》當是時, 上之左右唯公及太師李韓公尤被簡任, 凡政令之敷布, 軍餉之轉輸, 羽檄之交馳, 皆二公相與協贊之.

【簡剩 간잉】선발에서 탈락된 사람을 이르는 말. 《魏書, 前廢帝廣陵王紀》詔曰, 頃官方失序, 仍令沙汰, 定員簡剩, 已有判決.

【簡子 간자】㉠편지. 간찰. /宋, 佚名氏《張協狀元, 戲文, 50齣》[末]男女非別人, 張簽判有簡子申呈. [淨]在那裏. [末]簡子在這裏. ㉡곡예(曲藝)를 설창(說唱)할 때 반주로 사용되는 타악기. /元, 佚名氏《翫江亭, 2折》稽首則不如跟貧道打簡子擲漁鼓, 搶着喫, 撻着喫, 抹油嘴, 無憂無慮那開懷. /明, 王圻《三才圖會, 器用》簡子, 以竹爲之, 長二尺許, 闊四五分, 厚半之. 其末俱略反外, 歌時用二片合擊之以和者也. ㉢식물 이름. /元, 佚名氏《陳州糶米, 3折》[張千云]爺說道, 前頭有的儘你吃, 儘你用, 又與我一件兒厭厭的東西, 敢是苦菜兒. [正末云]不是. [張千云]蘿蔔簡子兒. [正末云]不是. /淸, 袁枚《隨園隨筆, 物而人名》草木而人名者, 睡草名寡婦箴·平仲·君遷·長卿·簡子. ㉣춘추시대 조양(趙鞅)을 이르는 말. 簡은 조양의 시호(諡號). 《列子, 說符》邯鄲之民以正月之旦獻鳩於簡子, 簡子大悅, 厚賞之. ㉤남조 제(南朝齊) 하창우(何昌寓)의 시호(諡號).

【簡子藤 간자등】등나무류의 식물 이름. /北魏, 賈思勰《齊民要術, 藤》簡子藤, 生緣樹木, 正月二月華色, 四月五月熟, 實如梨, 赤如雄雞冠, 核如魚鱗. 取生食之, 淡泊無甘苦. 出交阯·合浦.

【簡恣 간자】소홀하고 방종함. 《明史, 夏時正傳》嘗上奏, 不具齋奏人姓名, 吏科論其簡恣. 「《宋詩紀事 91》

【簡長 간장】송(宋)나라 때 중. 구승(九僧)의 한 사람.

【簡章 간장】서적. 또는 전장(典章). /南朝宋, 顏延之《又釋何衡陽書》事緯殃福, 義雜胡華, 雖存簡章, 自至煩文, 過此以往, 余欲無言. /淸, 姚錫鈞《春聲自序》石林載筆, 掇拾簡章, 天寶紀遺, 點染宮禁, 蓋猶足備石匱, 爲一家言.

【簡莊 간장】청(淸) 진전(陳鱣)의 호(號).

【簡裝 간장】행장을 꾸림. /淸, 蒲松齡《聊齋志異, 橘樹》劉任滿, 橘盈把矣. 是年初結實. 簡裝將行, 以橘重贖, 謀棄之.

【簡才(材) 간재】현재(賢才)를 가림. /晉, 盧諶《覽古詩》簡才備行李, 圖令國命全. /明, 宋濂《擬詰命起結文》爾其正名而責實, 簡材而授能, 使野無遺賢, 萬邦咸寧, 則銓覈

之任得矣.

【簡在 간재】...에 달려 있음. ...에 존재함. 《論語, 堯曰》帝臣不蔽, 簡在帝心. 《新唐書, 長孫無忌傳》無忌等義貫休戚, 効挺夷險, 嘉庸懿績, 簡在朕心. /明, 李東陽《與東山劉都憲書》引身之疏, 不意即上, 聖明簡在, 特示勉留.

【簡齋 간재】 ㉠호(號). ①송(宋) 진여의(陳與義)의 호. ②청(淸) 원매(袁枚)의 호. ③청 술아(帥我)의 호. ㉡명(明) 진각(陳恪)의 시호(諡號).

【簡齋集 간재집】 송(宋) 진여의(陳與義)의 시문집. 16권. 《四庫提要, 集, 別集類 3》

【簡狄(邊) 간적】 상고시대의 사람 이름. 유용씨(有娥氏)의 딸. 제곡(帝嚳)의 아내. 제비 알을 먹고 설(契)을 낳았다고 한다. 《楚辭, 天問》簡狄在臺嚳何宜. 玄鳥致胎女何喜. 《史記, 殷本紀》殷契, 母曰簡狄, 有娥氏之女, 爲帝嚳次妃. 三人行浴, 見玄鳥墮其卵, 簡狄取吞之, 因孕生契. <司馬貞索隱> 舊本作易, 易·狄音同. 又作邊. 《漢書, 古今人表》簡邊, 帝嚳妃, 生高. <顏師古注> 邊, 音吐歷反. 卽簡狄也.

【簡拙 간적】 선발하여 임용함. /明, 唐順之《石湖王傅辱觀拙集見贈長句二十三韻奉答一首》偶熟草木鳥獸經, 充貢王廷叨簡拙.

【簡寂 간적】 간약(簡約)하고 차분함. /明, 方孝孺《贈王時中序》其容貌簡寂如儒者, 其神氣閑定如列僊之流, 莫能明其術也.

【簡寂先生 간적선생】 남조 송(南朝宋) 육수정(陸修靜)의 시호(諡號).

【簡翟 간적】 간적(簡狄)의 다른 이름. 《淮南子, 墜形訓》有娥在不周之北, 長女簡翟, 少女建疵. <高誘注> 簡翟·建疵, 姊妹二人, 在瑤臺, 帝嚳之妃也. 天使玄鳥降卵. 簡翟吞之, 以生契.

【簡籍 간적】 문서. 또는 책. /唐, 陳元光《太母魏氏半徑題石詩》清貞蜚簡籍, 規範肅門楣.

【簡典 간전】 소박하면서도 전아(典雅)함. /淸, 郝懿行《宋瑣語, 下》高祖因宴集, 謂羣公曰, 我布衣, 始望不至此. 傅亮之徒並撰辭, 欲盛稱功德. 弘率爾對曰, 此所謂天命, 求之不可得, 推之不可去. 時人稱其簡典.

【簡切 간절】 간요(簡要)하고 절실함. 간명하고 직절함.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文學》劉便作二百許語, 辭難簡切, 孫理遂屈. /宋, 蘇洵《上田樞密書》詩人之優柔, 騷人之精深, 孟韓之溫淳, 遷固之雄剛, 孫吳之簡切, 投之所嚮, 無不如意.

【簡絕 간절】 간단하고 명확함. 《紅樓夢, 94回》常在老太太跟前誇他們姑娘怎麼長的好……說話兒又簡絕, 做活計兒手兒又巧.

【簡節 간절】 ㉠박자가 단순하고 느낌. 《禮記, 樂記》悤悤慢易繁文簡節之音作, 而民康樂. <鄭玄注> 簡節, 少易也. <孔穎達疏> 簡節, 少易也者, 謂樂聲曲折雖繁多, 其節簡少, 謂緩歌而疏節也. ㉡법규를 간략하게 함. /唐, 韓愈《送鄭尚書序》故常薄其征入, 簡節而疎目, 時有所遺漏, 不究切之.

【簡節繁文 간절번문】 억양이 화려하고 박자가 느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 《禮記, 樂記》悤悤慢易繁文簡節之音作, 而民康樂. /唐, 司空圖《成均圖》非簡節繁文之制, 不用於明庭, 非崇嚴煦育之姿, 不傳於委巷.

【簡點 간점】 ㉠뺏아서 정함. 선정함. /唐, 吳兢《貞觀政要, 納諫》簡點使右僕射封德彝等並欲中男十八以上, 簡點入軍, 勅三四出, 徵執奏以爲不可. /宋, 吳處厚《青箱雜記 4》劉公不欲七姨爲匹, 意欲九姨議姻故也. 夫人詰之曰, 諺云, 薄

餅從上揭. 劉郎纔及第, 豈得便簡點人家女. 劉公曰, 非敢有擇, 但七姨骨相寒薄, 非某之對, 九姨乃宜匹. ㉡검점함. 정리함. /淸, 錢謙益《外制集序》然文正諸公文集皆刊落制詞不載. 或謂綸綍尊嚴, 不錯置別集, 或謂館閣隆重, 無暇簡點文字. /淸, 孫枝蔚《即事送王築夫歸八寶詩》簡點萊衣空在筥, 懷中無橘手無羹.

【簡正 간정】 엄정함.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賞譽》王大將軍與元皇表云, 舒(王舒)風概簡正, 允作雅人, 自多於遂.

【簡正理 간정리】 송(宋) 임강군(臨江軍) 신유(新喻) 사람. 자는 서벽(西碧). 벼슬은 어사(御史)·신야령(新野令). 《萬姓統譜 81》

【簡定 간정】 심사하여 결정함. 조사하여 결정함. /三國魏, 曹植《漢武帝贊》簡定律曆, 辯修舊章.

【簡靖 간정】 ㉠간결하고 차분함. 《南史, 宋紀 中, 文帝》躬勤政事, 孜孜無怠, 加以在位日久, 惟簡靖爲心. /唐, 柳宗元《封建論》聞黃霸之明審, 觀汲黯之簡靖. ㉡금(金) 완안수도(完顏守道)의 시호(諡號).

【簡靜 간정】 ㉠간결하고 조용함. /唐, 陳玄祐《離魂記》[張鎰]性簡靜, 寡知友. /金, 王若虛《贈昭毅大將軍》公敦朴簡靜, 而辭色溫溫, 接物極愷悌. ㉡정사가 번거롭거나 가혹하지 않음. 《隋書, 韋世康傳》世康爲政簡靜, 百姓愛悅, 合境無訟. /宋, 曾鞏《擬峴臺記》君既因其土俗而治以簡靜, 故得以休其暇日. ㉢줄어듦. 감소함. 《周書, 李和傳》和至州, 以仁怒訓物, 獄訟爲之簡靜.

【簡靜齋 간정재】 정(淸) 고사기(高士奇)의 호(號).

【簡制 간제】 독단으로 결단하고 제약함. /淸, 朱之瑜《中原陽九述略》責報者尙未盈其欲, 恣行者有簡制之嫌.

【簡除 간제】 ㉠감면하고 폐지함. 《後漢書, 循吏傳, 劉寵》寵簡除煩苛, 禁察非法, 郡中大化. ㉡선발하여 임용함. /明, 余繼登《典故紀聞 14》成化時, 御史劉璧等言, 吏部之選舉, 雖下僚末職, 亦不過具實奏聞, 上請裁處, 未敢自專. 或薦非其人, 士論得以攻之, 臺諫得以言之, 朝廷得以罪之. 列聖立法, 所以不自簡除, 正以此耳.

【簡第 간제】 등급을 뚜렷하게 나눔. 《晉書, 石季龍載記 上》先是, 大發百姓女二十已下十三已上三萬餘人, 爲三等之第以分配之……季龍臨軒簡第諸女.

【簡濟 간제】 간단하고 편리함. 간편함. 《新唐書, 趙瑋傳》昶之喪, [瑋]知忠武留後, 政簡濟, 上下安之.

【簡照 간조】 관심을 가지고 돌봄. 《後漢書, 胡廣傳》臣等竊以爲廣在尙書, 劬勞日久, 後母年老, 既蒙簡照, 宜試職千里, 匡寧方國.

【簡調 간조】 가려서 등용함. /淸, 梁啓超《變法通議, 論不變法之害》乾隆中屢次西征, 猶復簡調前往, 朝馳羽檄, 夕報捷書.

【簡躁 간조】 경박하고 조급함. 《詩, 小雅, 楚茨》爲豆孔庶. <孔穎達疏> 毛以孔庶爲甚衆, 故云莫莫, 淸靜而敬至. 由后能淸靜恭敬又至篤, 故能爲豆甚多, 若簡躁不恭, 則不能也.

【簡朝亮 간조량】 청(淸)나라 사람. 저서: 尙書集註述疏·論語集註述疏·孝經集註述疏.

【簡祖英 간조영】 명(明) 광둥(廣東) 둥완(東莞) 사람. 자는 세영(世英). 벼슬은 건평 지현사(建平知縣事). 《國朝獻徵錄 112》·《本朝分省人物攷 110》·《續藏書 24》

【簡州 간주】 주(州) 이름. ㉠수대(隋代)에 두었다. 소재지는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의 횡현(橫縣) 남서쪽에 있었다. 《讀史方輿紀要, 廣西, 南寧府, 橫州》 ㉡수대에 두었다. 소재지는 사천성(四川省) 간양현(簡陽縣)의 북

서쪽에 있었다. 《讀史方輿紀要, 四川, 成都府, 簡州》

【簡舟 간주】 청(淸) 오영(吳英)의 자(字).

【簡注 간주】 유념함. 관심을 둠. /宋, 曾鞏《賀韓相公赴許州啓》忠純之操, 簡注於三朝, 愷悌之風, 儀刑於四海. 《明史, 王佐傳》器宇凝重, 奏對詳雅, 爲宣宗所簡注.

【簡珠 간주】 큰 구슬. /漢, 應瑒《侍五官中郎將建章臺集詩》簡珠墮沙石, 何能中自諧. /明, 汪道昆《洛水悲》[旦]妾身願奉明璫以酬令德. [生]得此簡珠, 敢不懷德.

【簡峻 간준】 엄숙함. 簡峭. 《南史, 謝朓傳》綦性簡峻, 時人方之李膺. /唐, 柳宗元《南嶽雲峰寺和尚碑》師之德, 簡峻淵默, 柔惠以直, 渙焉而不積, 同焉而皆得.

【簡雋 간준】 간략하고도 의미심장함. /明, 陸時雍《詩鏡總論》白頭吟寄興高奇, 選言簡雋.

【簡重 간중】 엄숙하고 진중함. 《後漢書, 孔融傳》時河南尹李膺以簡重自居, 不妄接士賓客. /宋, 歐陽脩《歸田錄 1》凡人簡重則尊嚴, 此貴臣相也.

【簡之 간지】 자(字). ㉠송(宋) 전경(田京)의 자. ㉡금(金) 이중략(李仲略)의 자. ㉢명(明) 왕훈(王薰)의 자. ㉣청(淸) 유사관(劉嗣冠)의 자.

【簡旨 간지】 정련된 지취(旨趣).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賞譽》王恭有清辭簡旨, 能叙說, 而讀書少, 頗有重出.

【簡至 간지】 말이나 글이 간단명료하면서도 주도면밀함. 簡詣.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賞譽》王夷甫自嘆我與樂令談, 未嘗不覺我言爲煩. <劉孝標注>樂廣善以約言厭人心, 其所不知, 默如也, 太尉王夷甫·光祿大夫裴叔則能清言, 常曰, 與樂君言, 覺其簡至, 吾等皆煩. /淸, 王夫之《薑齋詩話, 上》庭燎有輝, 鄉晨之景, 莫妙於此……唐人除夕詩殿庭銀燭上熏天之句, 寫除夜之景, 與此仿佛, 而簡至不逮遠矣.

【簡紙 간지】 ㉠대쪽[竹簡]과 종이. 글씨를 쓰는 여러 종류의 용품을 이른다. 《後漢書, 賈逵傳》令逵自選公羊殿顏諸生高才者二十人, 教以左氏, 與簡紙經傳各一通. <李賢注>竹簡及紙也. ㉡편지지. 《宋史, 王曾傳》平生自奉甚儉, 有故人子孫京來告別, 曾留之具饌, 食後, 合中送數軸簡紙, 啓視之, 皆它人書簡後裁取者也.

【簡直 간직】 ㉠소박하고 정직함. 또는 단순 명쾌함. /唐, 劉知幾《史通, 論贊》王劭志在簡直, 言兼鄙野, 苟得其理, 遂忘其文. /宋, 司馬光《述國語》故其辭語繁重, 序事過詳, 不若春秋傳之簡直精明, 渾厚適峻也. ㉡차라리. 아예. 《黃繡球, 15回》簡直還叫他們帶了一面鎗羅, 一副鼓板, 做足了樣子.

【簡帙 간질】 ㉠책을 이르는 말. /明, 胡應麟《少室山房筆叢, 經籍會通 2》皇朝製作, 稍以己意列其指歸, 析類分門, 總爲一集, 庶千載簡帙之廢興, 百氏編摩之得失, 一日可以盡其大都. /明, 何景明《啜盜文》箱委簡帙, 狼籍江隅. 持我衣服, 猶存其書. ㉡글을 쓴 두루마리. 또는 책의 쪽. /宋, 曾鞏《上歐陽學士第一書》謹獻雜文·時務策兩編, 其傳繕不謹, 其簡帙大小不均齊, 鞏貧故也. /明, 李贄《答焦漪園書》年來有書三種, 惟此一種繫千百年是非, 人更八百, 簡帙亦繁, 計不止二千葉矣.

【簡質 간질】 간소하고 질박함. 《三國志, 魏志, 邴原傳》永寧大僕東郡張閭以簡質聞. /唐, 劉知幾《史通, 序例》嶠言辭簡質, 敘致溫雅, 味其宗旨, 亦孟堅之亞歟.

【簡集 간집】 집합시켜 검열함. /漢, 班固《白虎通, 田獵》王者諸侯所以田獵者何. 爲田除害, 上以供宗廟, 下以簡集士衆也.

【簡輯 간집】 골라 뽑아서 편집(編輯)함. /明, 徐禎卿《談藝錄》古詩降魏, 辭人所遺, 雖有蕭統簡輯, 過冗而不精.

【簡札 간찰】 ㉠고대에 문자를 기록하는 데 쓰인 대쪽이나 나무조각. /漢, 王充《論衡, 自紀》其隱乎猶吾文未集於簡札之上. /晉, 袁宏《後漢紀, 桓帝紀下》滂對曰, 臣之所學, 自非鬻穢姦罪, 豈以汚臣簡札. /唐, 元結《廣宴亭記》吾當裁畜簡札, 待爲之頌. ㉡문서. 또는 편지. /淸, 劉毓崧《杜觀察古謠諺序》語言在文字之先, 故點畫不先於聲音, 簡札不先於應對. 自來講點畫者, 兼溯聲音之始, 工簡札者, 兼求應對之宜. ㉢글씨를 쓴. 《舊唐書, 陸贄傳》贄揮翰起草, 思如泉注, 初若不經思慮, 既然後, 莫不曲盡事情, 中於機會, 胥吏簡札不暇, 同舍皆伏其能.

【簡槩 간감】 글씨를 쓰는 목판이나 첩판. /宋, 周密《癸辛雜識前集, 簡槩》簡槩古無有也, 陸務觀謂始於王荆公, 其後盛行. 淳熙末始用竹紙高數寸闊尺餘者, 簡板幾廢. 《老學庵筆記 3(宋, 陸游)》

【簡暢(暢) 간창】 시원시원함. 또는 간략하고 유창함. /三國魏, 劉劭《人物志, 九徵》簡暢而明砥, 火之德也. /南朝宋, 劉義慶《世說新語, 賞譽》友人王眉子淸通簡暢, 嵇延祖弘雅勁長. /唐, 李華《三賢論》中山劉穎士端, 疎明簡暢, 潁川韓拯佐元, 行略而文.

【簡冊 간책】 ㉠책. 서적. /唐, 柳宗元《楊評事文集後序》著述者流……其要在於高壯廣厚, 詞正而理備, 謂宜藏於簡冊也. /宋, 曾鞏《寄趙宮保詩》素節謙言留簡冊, 高情淸興入林泉. /淸, 孫枝蔚《詠物詩, 蠹魚》有屋不殊楊子居, 簡冊之外更無餘. ㉡사서(史書)를 이르는 말. /唐, 劉知幾《史通, 敘事》夫以吳徵魯賦, 禹計塗山, 持彼往事, 用爲今說, 置於文章則可, 施於簡冊則否矣. 《舊唐書, 楊發傳》發與都官郎中盧搏獻議曰……歷檢國史, 並無改造重題之文, 若故事有之, 無不書於簡冊. ㉢책문(冊文). /唐, 李德裕《早入中書行公主冊禮事畢登集賢閣成詠》簡冊自中來, 貂黃忝授. /唐, 韓愈《順宗實錄 5》應乾聖壽太上皇冊文: 然稱謂所施, 簡冊攸著, 涵泳道德, 感於精誠.

【簡策(筴) 간책】 대쪽을 엮어 만든 간책(簡冊). 또는 사적(史籍)이나 전적(典籍)을 이르는 말. 《管子, 宙合》是故聖人著之簡策, 傳以告後進. /漢, 王充《論衡, 定賢》口談之實語, 筆墨之餘跡, 陳在簡策之上. /宋, 司馬光《進交趾獻奇獸賦表》臣等謂宜命協律播之聲歌, 詔太史編之簡策.

【簡尺, 간척】 편지. 척독(尺牘). /宋, 邵雍《首尾吟 91》簡尺每稱林下士, 過從或着道家衣. /宋, 趙彥衛《雲麓漫鈔 4》秦忠獻與人簡尺, 多云丈, 世俗倣之, 雖貽晚進書, 亦云丈.

【簡斤 간척】 멀리함. 소원함. 《後漢書, 逸民傳, 梁鴻》妻乃跪牀下請曰, 竊聞夫子高義, 簡斤數婦, 妾亦偃蹇數夫矣. <李賢注>斤, 遠也.

【簡賤 간천】 가뭄이 봄. 경시함. 《文子, 符言》老子曰, 人有三死, 非命亡焉. 飲食不節, 簡賤其身, 病共殺之, 樂得無已, 好求不止, 刑共殺之.

【簡帖 간첩】 편지. 서간. /宋, 蘇軾《與張元明書》適在院中, 得王郎簡帖如此, 今封呈, 切告輟忙一往. /金, 董解元《西廂記諸宮調 4》親曾和俺詩韻, 分明寄著簡帖, 誰知是咕哝, 此恨教人怎割捨.

【簡捷 간첩】 간편함. 간단 명료함. /宋, 沈括《夢溪筆談, 技藝》若位數少, 則頗簡捷, 位數多, 則愈繁. /明, 何良俊《四友齋叢說, 經 4》我朝陳白沙·王陽明二公之學, 功夫簡捷, 最易入道.

【簡牒 간첩】 ㉠편지. 간독(簡牘). 《雲笈七籤 7》蔡倫始造紙, 爾前唯書簡牒. /宋, 張世南《游宦紀聞 7》師古曰, 刀所以削書也, 古用簡牒, 皆以刀筆. ㉡문서. 또는 공문(公

文). /唐,白居易《唐贈尚書工部侍郎吳郡張公神道碑銘序》及除書簡牒到門,即公捐館舍之明日也.

【簡峭 간초】=簡峻.《新唐書,儒學傳上,顏師古》師古性簡峭,視輩行傲然,罕所推接.

【簡撮 간촬】선택함. 가려 뽑음.《後漢書,仲長統傳》今簡撮其書有益政者,略載之云.

【簡出 간출】●선별하여 궁중에서 내보냄.《後漢書,郎顛傳》宜簡出宮女,資其姻嫁. /明,沈德符《野獲編,吏部1,人臣漁色無等》寧陽侯陳輔,幼聘駙馬楊偉女,待年未娶,因聞涑水縣郝榮有女殊色,曾入內廷,簡出,輔匿楊氏,婚娶之. ●드물게 나옴. /唐,韓愈《送浮屠文暢師序》夫默深居而簡出,懼物之爲己害也.《續資治通鑑,宋仁宗皇祐4年》諫官韓絳因對而言曰,天下柄不下移,事當簡出審斷. ●검사하여 찾아냄.《二刻拍案驚奇 4》兩個秀才問湯興與取了行囊,簡出貢生赴京文書放在身邊了.

【簡黜 간출】내쫓음. 폐출(廢黜)함. /漢,桓寬《鹽鐵論,除狹》是以賢者進用,不肖者簡黜.

【簡衷 간중】올바르고 당당함. /晉,習鑿齒《與謝安論釋道安書》其人理懷簡衷,多所博涉,內外群書,略皆徧睹,陰陽算數,亦皆能通.

【簡取 간취】뽑아 씀.《三國志,蜀志,王連傳》於是簡取良才,以爲官屬,若呂乂·杜祺·劉幹等,終皆至大官,自連所拔也. /唐,吳兢《貞觀政要,納諫》中男若實小,自不點入軍,若實大,亦可簡取.

【簡快 간쾌】간편함. 또는 간략하고 명쾌함. /宋,陶穀《清異錄,方便囊》唐季,王侯競作方便囊,重錦爲之,形如今之照袋. 每出行,雜置衣巾鑑鏡香藥辭冊,頗爲簡快. /金,王若虛《史記辨惑 7》政(羈政)姊榮,聞人有刺殺韓相者,賊不得,國不知其姓名,暴屍而縣之千金,乃於邑曰云云,但言政姊榮聞之於邑,豈不簡快乎.

【簡惰 간타】소홀하고 나태함.《文選,傅毅,舞賦》簡惰跳躑,般紛擘兮. <李善注>簡惰,疎簡怠惰也. /宋,蘇轍《謝韓許州啓》伏念某爲性迂疎,居官簡惰,日虞彈劾,歸事耕桑.

【簡擢 간탁】선발하여 임용함. /唐,玄奘《大唐西域記,摩揭陀國下》王將出遊,欲委留事,簡擢中宮,無堪承命.《續資治通鑑,宋仁宗慶曆8年》豈制度未立,不能變通於時邪. 簡擢靡臻,不能勸厲於下邪.

【簡誕 간탄】태만하고 방종함. /唐,司空圖《上譙公書》抑簡誕以捐空,峻規程而括實,則病應適時之宜盡矣.

【簡倪 간탈】=簡脫의 ●.《新唐書,李程傳》程爲人辯給多智,然簡倪無儀檢,雖在華密,而無重望.

【簡脫 간탈】●대범함. 호방하여 구속에 얽매이지 않음. 簡倪. /晉,葛洪《抱朴子,譏惑》抑斷之儀廢,簡脫之俗成. /宋,范鎮《東齋記事 2》庶(房庶),玄齡之後,其爲人簡脫. ●서간(書簡)이 떨어져 나감. /漢,劉歆《移書讓太常博士》故詔書曰,禮壞樂崩,書缺簡脫,朕甚閔焉.

【簡汰 간태】골라냄. 또는 줄임.《南史,謝方明傳》方明簡汰精當,各順所宜,東土稱詠之.《元典章,詔令 1,世祖聖德神功文武皇帝》簡汰冗員,擢節浮費,一新政理,斯稱朕意.

【簡怠 간태】태만함.《三國志,魏志,陳思王植傳》今令諸國兄弟,情理簡怠,妃妾之家,膏沐疏略,朕縱不能敦而睦之,王援古喻義備悉矣,何言精誠不足以感通哉.

【簡擇 간택】선택함.《戰國策,楚策 2》秦王有愛女而美,又簡擇宮中佳翫麗好·翫習音者,以權從之. /晉,葛洪《抱朴子,弭訟》夫婚媾之結,義無逼迫,彼則簡擇而求,此則可意乃許.

【簡討 간토】명대(明代) 한림원(翰林院) 사관(史官)의 관직명. 본래는 검토(檢討)라고 하였는데, 승정제(崇禎帝)의 이름을 휘(諱)하여 바꾼 것이다. /清,王士禛《池北偶談,談異 4,劍俠》日照李洗馬,聞之望江龍簡討云.

【簡退 간퇴】은자(隱者)를 선발하여 임명함.《南史,隱逸傳下,諸葛璩》齊建武初,南徐州行事江祀薦璩於明帝,言璩安貧守道,悅禮敦詩,如其簡退,可揚清厲俗,請辟爲議曹從事.《魏書,前廢帝廣陵王紀》[詔]前員外簡退優階者,追之,稱事簡下者,仍優一級.

【簡派 간파】선발하여 파견함. /清,平步青《霞外攬屑,掌故,端肅案》又請於親王中簡派一二人,令其輔弼.

【簡罷 간파】골라냄. 제거함.《新唐書,李絳傳》會迪簡以祭廡匱竭,稍簡罷士之疲老者,人情不安.

【簡板 간판】●=簡版的 ●. /清,褚人穫《堅瓠續集,簡板尺牘》古人與朋儕往來,以漆皮作書帖,又苦其漏泄,遂作二板相合,以片紙封其際,故曰簡板,或云尺牘.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흰색이나 검은색을 칠한 목판이나 첩판. /明,郎瑛《七修類稿,辯證 8,簡板水牌》俗以長形薄板塗布油粉,謂之簡板,以其易去錯字而省紙,官府用之,名曰水牌.

【簡板對 간판대】율시(律詩)의 수련(首聯)과 함련(頤聯)의 대우(對偶)를 이르는 말. 간판이 서로 마주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明,謝榛《四溟詩話 3》子美遣意二首,皆偏入格……至於轉枝黃鳥近,泛渚白鷗輕,此亦對起,頗似簡板.《四溟詩話 2》許用晦金陵懷古,頤聯簡板對兩.

【簡版 간판】●목판이나 첩판에 글씨를 쓴 간첩(簡帖). 簡板. 簡牌子. /宋,陸游《老學庵筆記 3》[王荆公]居半山,好觀佛書,每以故金漆版書藏經名,遣人就蔣山寺取之……南人謂之簡版,北人謂之牌子,又通謂之簡版,或簡牌子. ●타악기의 일종. 긴 대판이나 나무판으로 만들어, 도정(道情) 등의 곡예(曲藝)에 반주로 쓰였다. →道情.《二刻拍案驚奇 19》捻着漁鼓簡板,口唱道情,飄然而去. /明,佚名氏《破天陣,1折》晨參暮禮,打漁鼓簡版.

【簡佩 간패】수판(手板). 어대(魚袋) 따위의 관복 장식품을 이르는 말. /宋,莊季裕《鷄肋編,下》錢諗以郎官作張浚隨軍轉運使,自請乞超借服色,既得之,遂誇於衆云,方患簡佩未有,而富樞以笏相贈,范相亦惠以金魚.

【簡牌子 간패자】=簡版的 ●. /宋,陸游《老學庵筆記 3》[王荆公]居半山,好觀佛書,每以故金漆版書藏經名,遣人就蔣山寺取之……南人謂之簡版,北人謂之牌子,又通謂之簡版,或簡牌子.

【簡便 간편】간단하고 편리함. /北魏,酈道元《水經注,溧水》秦始皇時,官務煩多,以次仲所易文,簡便於事要,奇而召之. /宋,宋敏求《春明退朝錄,中》閣門有舊閣圖,頗約其禮而簡便之.

【簡編 간편】●죽간을 꿰어 연결하는 끈. /晉,葛洪《抱朴子,鈞世》且古書之多隱,未必昔人故欲難曉……經荒歷亂,埋藏積久,簡編朽絕,亡失者多. /唐,蘇頌《壘上記,玉屨》齊建元中,盜發楚王塚,獲玉鏡玉屨,又得古書,青絲簡編. ●책. 서적. /唐,韓愈《符讀書城南詩》燈火稍可親,簡編可卷舒.《舊五代史,唐書,明宗紀 7》帝御文明殿受冊徽號,冊曰……休微備載於簡編,徽號過持於謙讓.

【簡平 간평】시호(諡號). ●북제(北齊) 고준(高浚)의 시호. ●원(元) 정종(定宗)의 시호.

【簡平儀 간평의】명대(明代)에 이탈리아 전도사 웅삼발(熊三拔:Sabbathino de Ursis, 1575~1620)이 지은 천문·역수(天文曆數)에 관한 책. 1권. 명수십이칙(名數十二則).

용법십삼칙(用法十三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庫提要, 子, 天文算法類》

【簡畢 간필】간찰(簡札). 문서. /清, 惲敬《前光祿寺卿伊公祠堂碑銘》惟是敬以後學操簡畢與廟庭之事, 懼勿任爲罪於後世. /清, 龔自珍《問經堂記》雖以龔鞏祚之吳然喜言百家, 登是堂, 愀乎非五經之簡畢不敢言焉.

【簡學齋 간학재】청(淸) 진항(陳沆)의 호(號).

【簡翰 간한】편지. 서신. /唐, 李吉甫《編次鄭欽悅辨大同古銘論》使至, 忽辱簡翰, 用浣襟懷. 不遺舊情, 俯見推訪. 《舊唐書, 李愬傳》軍吏咸以不殺祐(李祐)爲言, 簡翰日至, 且言得賊謀者具言其事.

【簡緘 간함】편지. 《東周列國志, 12回》從人將簡緘呈上, 急子拆而看之, 簡上只有八個字云, 弟已代行, 兄宜速避.

【簡亢(伉) 간항】거만함. 또는 청고(淸高)함. 《後漢書, 黨錮傳, 李膺》膺性簡亢, 無所交接, 唯以同郡荀淑·陳寔爲師友. /明, 李贄《答耿司寇》其杜門不出, 非簡亢也, 非絕人逃世也. /明, 方孝孺《菜根居士傳》少簡伉, 志氣高, 不與世俛仰.

【簡核(覈) 간핵】①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함. 또는 심사하여 결정함. 《書, 呂刑》五刑不簡. <孔傳>不簡核, 謂不應五刑. 《後漢書, 王堂傳》其憲章朝右, 簡覈才職, 委功曹陳蕃. /清, 薛福成《強鄰環伺謹陳愚計疏》且論今日海軍, 不在驟拓規模, 而在簡覈名實, 不在遽添船砲, 而在增練材藝. ②간요하고 확실함. 《新唐書, 吳兢傳》兢敘事簡核, 號良史. /清, 王士禛《池北偶談, 談藝 1, 秦中諸志》誌以簡核爲得體, 康德涵武功志最稱於世.

【簡憲 간헌】①법률이나 전장(典章) 따위를 기록한 문서. 《隋書, 刑法志序》歲布平典, 年垂簡憲, 昭然如日月, 望之者不迷, 曠乎如大路, 行之者不惑. ②남조 양(南朝梁) 장찬(張纘)의 시호(諡號).

【簡獻 간헌】요(遼) 소후(蕭后)의 시호(諡號).

【簡驗 간험】감사하여 증명함. 《二刻拍案驚奇 36》我如今密地差人把寺圍了, 只說查取犯法贓物, 把他家資盡數抄將出來, 簡驗一過, 那怕鏡子不在裏頭. 《水滸傳, 103回》州尹聞報大驚, 火速差縣尉簡驗殺死人數, 及行凶人出沒去處.

【簡賢 간현】①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갈음. 《漢書, 谷永傳》治天下者, 尊賢考功則治, 簡賢違功則亂. <顏師古注>簡, 略也, 謂輕慢也. /宋, 王應麟《困學紀聞, 考史 3》致堂論馬援曰, 光武非簡賢者, 必以其女爲太子妃, 逆防未然, 故不授以重任. 馬后紀, 入太子宮在援卒之後, 防未然之說非. ②簡賢任能의 준말. /朝鮮, 洪宇遠《辭大司憲疏》臣聞官以簡賢, 爵以命德, 非賢非德, 是謂濫授.

【簡賢附勢 간현부세】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갈보고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빌붙음. ⇒簡賢의 ①. 《書, 仲虺之誥》簡賢附勢, 寔繁有徒. <孔傳>簡, 略也. 賢而無勢則略之, 不賢有勢則附之. /宋, 范仲淹《上執政書》以移風易俗爲虛語, 以簡賢附勢爲知幾.

【簡賢任能 간현임능】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함. 簡賢. 《舊唐書, 郭子儀傳》委諸相以簡賢任能, 付老臣以練兵禦侮, 則黎元自理, 寇盜自平, 中興之功, 旬月可冀.

【簡兮 간혜】시경(詩經) 패풍(邶風)의 편명(篇名). 위(衛)나라의 현자(賢者)가 영관(伶官)에 머물러 현자로 쓰이지 못함을 풍자한 시이다. 현자가 뜻을 얻지 못하여 성악(聲樂)에 빠짐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詩, 邶風, 簡兮序》簡兮, 刺不用賢也. 衛之賢者, 仕於伶官, 皆可以承事王

者也. /明, 何良俊《四友齋叢說摘抄 4》[康猗西]後自放於聲樂, 亦簡兮詩人之意.

【簡惠 간혜】정사가 관대하고 은혜로움. /南朝宋, 武帝《江陵平加領南蠻校尉下書》每永懷民瘼, 宵分忘寢, 誠宜蠲除苛政, 弘茲簡惠. 《南史, 羊欣傳》在郡四年, 簡惠著稱.

【簡忽 간홀】경시함. 소홀히 함. 《後漢書, 崔駰傳》俗人拘文牽古, 不達權制, 奇偉所聞, 簡忽所見. /宋, 司馬光《請不受尊號劄子》豈可謂之漠然無知, 而簡忽不顧哉.

【簡驩 간환】맹자(孟子)가 우사(右師) 왕환(王驩)을 경시했다고 오해를 받은 고사. 예에 맞추어 행동하다가 남을 경시한다는 오해를 받음을 이르는 전고(典故)로 쓴다. /宋, 周輝《清波別志, 上》三四十年前占辭修敬, 以頓首再拜爲重, 今非上覆, 則有簡驩之嫌, 要知拜重於覆. 《孟子, 離婁下》

【簡闊 간활】소략함. 《後漢書, 黨錮傳序》憲令寬除, 文禮簡闊. 《宋書, 良吏傳論》漢世戶口殷盛, 刑務簡闊, 郡縣治民, 無所橫擾.

【簡皇后 간황후】남조 양(南朝梁) 태종(太宗)의 왕후 왕영빈(王靈賓)의 추시(追諡). ⇒王后의 ㉓㉔.

【簡會 간회】구별하여 이해함. /清, 鄒祇謨《遠志齋詞表, 詩人之詞與詞人之詞》詩人之詞, 自然勝引, 託寄高曠, 詞人之詞, 纏綿蕩往, 窮纖極隱. 此理正難簡會.

【簡懷 간회】당(唐) 왕여(王珣)의 시호(諡號).

【簡侯 간후】자(字). ①청(淸) 양능격(楊能格)의 자. ②청 남원매(藍元枚)의 자.

【簡厚 간후】소박하고 순후(淳厚)함. 《東觀漢記, 順帝紀》帝幼有簡厚之質, 體有敦愨之性.

【簡恤(卹) 간홀】실정을 살펴 도와줌. 《書, 文侯之命》簡恤兩都, 用成爾顯德. <孔傳>當簡核汝所任, 憂治汝都鄙之人. 《後漢書, 袁術傳》及竊僞號, 淫侈滋甚, 糜餼數百, 無不兼羅紈, 厭梁肉, 自下饑困, 莫之簡卹. 「后의 ㉓㉔.

【簡姬 간회】진(晉) 간문제(簡文帝)의 왕후 이름. ⇒王

【簡僖 간희】원(元) 고선(高宣)의 시호(諡號).

12 簡 간

簡과 같다. 《俗書刊誤 2》簡, 俗作簡.

12 簡

簡	小
	篆
說文·心部	

간 産 ㉓ 《集韻》賈限切 jiǎn

《說文, 心部》簡, 簡存也. 从心, 簡省聲. 讀若簡. 있다. 존재하다. 《說文, 心部》簡, 簡在也. 从心, 簡省聲, 讀若簡. <段玉裁注>各本作簡存也三字, 今正……論語簡在帝心, 卽簡字之段借. 《積微居小學述林, 說文讀若探源》論語堯曰篇云, 簡在帝心. 字作簡, 然簡字从竹, 義爲簡冊, 簡在當以作簡爲正. 然經傳既假簡爲簡, 則二字同音可知, 故許君云, 簡讀若簡也.

12 箴 감 謙 ㉓ 《廣韻》古斬切 jiǎn

대나무 이름. 《玉篇, 竹部》箴, 竹名.

날조하다. 《紅樓夢, 19回》我就知道你是編我呢. 《老殘遊記, 6回》那花胳膊王三就編了法子把他爸爸也算了個強盜, 用站籠站死. ①현(縣) 이름. ⇒編縣. ②성(姓). 《後漢書, 方術傳, 解奴辜》又有編盲意, 亦與鬼物交通. ③망다. 뒤에 辦으로 썼다. ⇒編髮. 《釋名, 釋首飾》編, 編髮爲之也. 《周禮, 天官, 追師》追師掌王后之首服, 爲副編次追衡笄. 《鄭玄注》編, 編列髮爲之, 其遺象若今假紒(髻)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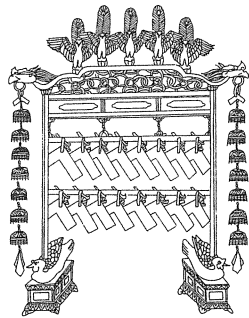
【編菅 편간】지붕을 이는 띠. 《左傳, 昭公27年》或取一編菅焉, 或取一秉秆焉, 國人投之, 遂弗蕪也. 《杜預注》編菅, 苫也. 《孔穎達疏》李巡曰, 編菅以覆屋曰苫. 郭璞曰, 白茅苫也, 是編菅爲苫也.

【編簡 편간】서적. 또는 사책(史冊). /唐, 韓愈《上兵部李侍郎書》凡自唐虞已來, 編簡所存, 大之爲河海, 高之爲山岳. /唐, 羅隱《讀書, 拾甲子年事》余過太行時, 有傳吏能道當時事, 因拾於編簡. /清, 姚椿《朱古愚翁真贊》翁家先世, 獨以儒教, 中更多故, 編簡失考.

【編纏 변강】여러 가닥의 실로 땅아서 만든 고삐. /朝鮮《譯語類解, 下, 鞍轡》編纏, 다흔 혁.

【編檢 편검】①명청(明清)시대에 사관(史館)에서 주관하는 편집과 교정의 일을 이르던 말. /明, 李東陽《賀鼎儀遷諭德得檢字》須知啓沃功, 不獨事編檢. ②명청시대 사관의 편수관(編修官)과 검토관(檢討官)을 아울러 이르던 말. /清, 陳康祺《郎潛紀聞 3》曝書亭集, 有恩賜禁中騎馬詩, 是康熙朝編檢入直, 亦竟有朝馬之賞也. /清, 俞樾《茶香室續鈔, 庶吉士散館》若留作編檢, 僅用濁醪豆腐而已.

【編磬 편경】16개의 두층의 걸이가 있는 틀에 층마다 두께가 서로 다른 여덟 개씩의 경쇠를 매달고 치는 타악기(打樂器). 《新唐書, 禮樂志 11》其物名具在八音……二曰石, 爲大磬, 爲編磬, 爲歌磬. 《三禮圖》股廣三寸, 長尺三寸半, 十六板同一筭虞者, 謂之編磬.



編磬 《樂學軌範》

【編結 변계】=編髮의 ①. 《文選, 王褒, 四子講德論》編結沮顏, 樵齒鼻間. 《李善注》編, 蒲典切. 結, 音計. 編結, 卽編髮也. 漢書終軍曰, 解髮編, 削左衽.

【編管 편관】송대(宋代)에 관리가 죄를 지으면 먼 지방에 유배하여 그 지방의 호적에 편입시키고 그 지방관의 통제를 받게 하던 형벌. 編伍. 編置. /宋, 司馬光《涑水記聞 16》呂吉甫大怒, 自上奪俠官, 汀州編管……其餘吏民有與俠交遊及餽送者皆杖臀二十, 遠州編管. /宋, 秦觀《鮮于子駿行狀》周永懿貪暴不法, 前使者憚其凶狡, 置不敢問, 公具得其姦贓, 卽遣吏就捕, 械送於獄, 永懿意除名編管衡州.

【編校 편교】편집하고 교정함. /宋, 沈括《夢溪筆談, 象數 1》予編校昭文書時, 預詳定渾天儀.

【編捏 편남】㉠엮어 맞춤. 짜맞춤. 編捏. /元, 喬吉《兩世因緣, 2折》想着他錦心繡腹那才能, 怎教我月下花前不動情, 信口裏小曲兒編捏成, 端的是剪雪裁冰.

【編年 편년】①사료(史料)나 저작(著作)등을 연대순으로 엮는 일. 《公羊傳, 隱公6年》春秋編年, 四時具, 然後爲年. /南朝梁, 劉勰《文心雕龍, 史傳》然紀傳爲式, 編年綴事, 文非泛論, 按實而書. ②編年體의 준말. /唐, 劉知幾《史通,

六家》所在史官, 記其國事, 爲紀傳者則規模班馬, 創編年者則議擬荀袁, 於是史漢之體大行, 而國語之風替矣. /宋, 司馬光《進資治通鑑表》臣常不自揆, 欲刪削冗長, 舉撮機要, 專取關國家盛衰, 繫生民休戚, 善可爲法, 惡可爲戒者, 爲編年一書, 使先後有倫, 精粗不雜.

【編年史 편년사】연대순으로 엮은 역사서. 연대기(年代記). ⇒編年體. /清, 李漁《梧桐》梧桐一樹, 是草木中一部編年史也……有節可紀, 生一年紀一年, 樹有樹之年, 人卽紀人之年, 樹小而人與之小, 樹大而人隨之大, 觀樹卽所以觀身.

【編年體 편년체】연대의 순서를 따라서 편찬한 역사서(歷史書)의 한 체제. 기전체(紀傳體)에 상대되는 말로, 죽서기년(竹書紀年)·춘추(春秋)·자치통감(自治通鑑) 등이 여기에 속한다. 編年. 《北史, 王劭傳》初撰齊志, 爲編年體二十卷, 復爲齊書紀傳一百卷. 《四庫提要, 史部, 編年類》

【編欄 (欄·闌) 편란】①장애물을 설치하여 막음. /宋, 司馬光《言蓄積劄子》今開封府及京東·京西水災之處, 放稅多及十分, 是大飢之歲也, 官吏往往更行收糶, 所給官錢既少, 百姓不肯自來, 中糶則遣人編欄·搜括, 無以異於寇盜之鈔劫. /宋, 朱或《萍洲可談 2》既至, 泊船市舶亭下, 五洲巡檢司差兵監視, 謂之編欄. ②몰아서 막음. /宋, 范成大《四時田園雜興詩 24》小童一棹舟如葉, 獨自編欄鴨陣歸. 《沈欽韓注》編欄, 猶趕綽也.

【編錄 편록】①순차에 따라 기록한 글. 《後漢書, 祭祀志 上》曾謂泰山不如林放, 何事汗七十二代之編錄. ②편집하여 기록함. 또는 그 책. 《南史, 孔休源傳》時周捨撰禮疑義, 自漢魏至于齊梁, 並皆搜采, 休源所有奏議, 咸預編錄. /唐, 范攄《雲溪友議 9》元公與袁氏琴瑟和諧, 亦房帷之美也. 余故編錄之. /宋, 何遜《春渚紀聞, 劉景文夢代晉文公》景文晚歲, 常夢與晉文公神交, 夢中酬唱甚多, 家有編錄.

【編弄 편롱】엮음. 짬. 《紅樓夢, 59回》那婆子見採了許多嫩柳, 又見藕官等採了許多鮮花, 心裏便不受用. 看着鶯兒編弄, 又不好說什麼.

【編柳 편류】가난함 속에서 어렵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 한(漢)의 손경(孫敬)이 버드나무조각을 엮어서 경서를 써서 공부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文選, 任昉, 爲蕭揚州薦士表》至乃集螢映雪, 編蒲緝柳 《李善注》楚國先賢傳曰, 孫敬到洛, 在太學左右一小屋安止母, 然後入學. 編揚柳窗以爲經. /隋, 江總《建初寺瓊法師碑》東山北山之部, 貫花散花之句, 並編柳成簡, 題蒲就業. /唐, 裴鉞《傳奇, 封陟》貪古人之糟粕, 究前聖之指歸, 編柳苦辛, 燃柏幽暗.

【編類 편류】유별로 배열하여 편집함. /唐, 元稹《唐故中大夫贈工部尚書李公墓誌銘》尋爲員外比部郎, 轉兵部·吏部, 始命由文由課而仕者, 歲得調, 編類條式, 以便觀者. /宋, 陳鵠《耆舊續聞 3》命蔡京·梁師成·黃冕輩編類真贋, 紙書縑素, 備成卷帙.

【編馬 편마】대오를 이룬 전투마. /漢, 賈誼《新書, 匈奴》既有編馬, 庫有陣車.

【編摩 편마】=編輯. /宋, 羅大經《鶴林玉露 11》陸象山云……每與同官悉意論駁, 朝廷清明, 常得寢罷. 編摩之事, 稽考之勤, 顧何足以當大官之膳.

【編網 편망】그물을 뜬. /朝鮮《譯語類解補, 佃漁》編網, 그물 뜬다.

【編氓 편맹】호적에 편입된 평민. 編氓. 編民. 編人. /唐, 武元衡《行路難詩》休說編氓朴無恥, 至竟終須合天理. /宋, 莊季裕《鷄肋編, 中》方今財用窘匱, 將天下官戶賦役同於編氓, 此急務也.

【編毗 편맹】=編氓. /唐, 康駢《劇談錄, 袁相雪換金縣令》李汧公鎮鳳翔, 有屬邑編毗, 因耨田得馬蹏金一瓮. 《舊唐書, 懿宗紀》編毗失業, 丘井無人.

【編目 편목】편성된 목록. /唐, 劉知幾《史通, 書志》於其編目, 則有前曰平準, 後云食貨. /清, 平步青《霞外攬屑, 斟書, 嚴鐵橋輯諸經逸注佚子書》今其稿散佚不全, 惟全上古三代·秦·漢·三國·晉·南北朝文編目中, 尚可考其厓略.

【編民 편민】=編氓. /唐, 孫樵《寓汴觀察判官書》今京兆二十四縣, 半爲東西軍所奪, 然亦不過籍占編民, 翼蔽墾田, 其辭獄曲直, 尚歸京兆. /宋, 王禹偁《擬罷蘇州貢橋詔》置候供須, 耗吾廩實, 隄防推輓, 動我編民. 忍將口腹之資, 重困黔黎之力.

【編髮 변발】①머리를 땅아서 뒤로 늘어뜨림. 일부 소수민족의 머리 모양으로, 만이(蠻夷)를 이르기에도 한다. 《尚書大傳 2》武丁內反諸己, 以思先王之道, 三年編髮重譯來朝者六國. 《史記, 西南夷傳》北至牂嶺, 名爲雋·昆明, 皆編髮, 隨畜遷徙. ②길게 땅아서 뒤로 늘어뜨린 만이의 머리를 이르는 말. 編結. 《漢書, 終軍傳》若此之應, 殆將有解編髮, 削左衽, 襲冠帶, 要衣裳, 而蒙化者焉. 《顏師古注》編讀曰辨. ③머리를 묶음. 어린 아이를 이른다. 《舊唐書, 孫伏伽傳》在東都城內及建德部下, 乃有與陛下積小故舊, 編髮友朋, 猶尚有人敗後始至者.

【編配 편배】유배(流配)할 죄인에 편입시켜 유배함. /宋, 司馬光《論赦劄子》比見臣僚多以私意偏見奏赦前事, 乞不原赦, 或更特行編配, 重於不經赦之人, 朝廷皆從其請. 《宋史, 瀛國公顯紀》[德祐元年二月]庚午, 應編配·拘鎖人, 除偽造關會·強劫盜放火者, 餘悉縱之.

【編排 편배】일정한 목적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함. /宋, 蘇軾《擬進士對御試策》右臣准宣命, 差赴集英殿編排舉人試卷. 《朱子語類 29》這一段下連巧言令色足恭, 都是一意, 當初孔門編排此書, 已從其類.

【編蓬 편봉】①쑥대를 엮음. 초라한 집의 창문은 쑥대를 엮어 만들었다. 또는 풀을 엮어서 집을 만들. /漢, 東方朔《非有先生論》居深山之間, 積土爲室, 編蓬爲戶, 彈琴其中, 以詠先王之風, 亦可以樂而忘死矣. /唐, 杜甫《寫懷詩 1》編蓬石城東, 采藥山北谷. ②대나무로 엮어 만든 초가집. 곧 가난한 사람의 집. /南朝梁, 劉孝標《辨命論》瑤臺夏屋, 不能悅其神. 土室編蓬, 未足憂其慮. /清, 劉大櫟《菴溪書屋圖記》嗟呼, 士當其貧賤之時, 卷身編蓬之下, 自謂與螻蟻何異.

【編削 편삭】책을 편집함. 《後漢書, 蘇竟傳》走昔以摩研編削之才, 與國師公從事出入, 校定秘書. 《李賢注》說文曰, 編, 次也. 削謂簡也, 一曰削書刀也.

【編修 편수】①책을 편집하고 교정함. 《新唐書, 明宗本紀》史館上言, 所編修莊宗一朝事, 欲名爲實錄. ②국사(國史)의 편찬에 종사하던 관원(官員). 송대(宋代)에는 사관(史館)에 편수관(編修官)을 두었고, 명청대(明清代)에는 한림원(翰林院)에 소속시켰다. 《合璧事類》·《續文獻通考, 職官考 4》·《歷代職官表 23》

【編數 편수】일정한 수 안에 편입시킴. 《後漢書, 南蠻西南夷傳論》故其錄名中郎·校尉之署, 編數都護, 部守之曹, 動以數百萬計.

【編隨 편수】열을 지어 서로 따름. 《韓非子, 初見秦》大王垂拱以須之, 天下編隨而服矣.

【編述 편술】저술함. 편집함. /唐, 劉知幾《史通, 六家》自古帝王, 編述文籍, 外篇言之備矣. /宋, 袁褰《楓窗小牘, 下》第奇秘闕逸, 較前少損, 所增多近代編述耳. 《紅樓夢,

1回》當此, 則自欲將已往所賴天恩祖德……以至今日一技無成·半生潦倒之罪, 編述一集, 以告天下之人.

【編室 편실】호적(戶籍)에 편입된 평민의 집. /宋, 司馬光《諸廟祈雪文》竊以雪霜不時, 神寔職之, 編室流亡, 吏當坐之.

【編審 편심】호구(戶口)를 조사하여 편찬 수정하는 일. /明, 謝肇淛《五雜俎, 地部 2》山東大戶, 每僉解馬, 編審之時, 已有科派, 俵解之時, 又有使用. 《清史稿, 食貨志 1》顧保甲行於平時, 而編審則丁賦之所由出也. 編審之制, 州縣官造冊上之府, 府別造一總冊上之布政司.

【編輿 편여】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교자(輻子). 《公羊傳, 文公 15年》脅我而歸之, 筍將而來也. 《何休注》荀者, 竹篋, 一名編輿.

【編譯局 편역국】청말(清末)에 번역하는 일을 관장하고 교육하던 관청. 《清史稿, 選舉志, 學校 2》上海設編譯局, 各學科除外國文外, 均讀編譯課本.

【編戶 ①편열 ②변열】①=編戶. 《漢書, 司馬相如傳下》彼豈樂死惡生, 非編戶之民, 而與巴蜀異主哉. 《顏師古注》編戶, 謂編戶也. ②가닥을 지어서 땅음. 《詩, 鄘風, 君子偕老》副笄六珈. 《毛傳》副者, 后夫人之首飾, 編髮爲之. 《孔穎達疏》言編, 若今之假紒者, 編戶他髮爲之.

【編捫 편열】=編捫. /元, 汪元亨《醉太平, 警世曲 3》但新詞雅曲閑編捫, 且粗衣淡飯權捫捫, 這虛名薄利不干涉.

【編伍 편오】①=編戶. /明, 張溥《五人墓碑記》而五人生於編伍之間, 素不聞詩書之訓, 激昂大義, 蹈死不顧, 亦曷故哉. ②=編管. /明, 陸垕《賞齋雜著, 時務策》刑罰, 則以刑之, 輕者答掠, 重者編伍, 其尤重者抵死.

【編韋 편위】죽간(竹簡)을 엮는 가죽끈이나 노끈. /北魏, 酈道元《水經注, 河水 1》余考釋氏之言, 未爲佳證, 穆天子·竹書及山海經, 皆埋繆歲久, 編韋稀絕, 書策落次, 難以編綴.

【編人 편인】=編氓. 《後漢書, 朱浮傳》自宗室諸王, 外家后親, 皆奉遵繩墨, 無黨執之名. 至或乘牛車, 齊於編人. /唐, 王維《能禪師碑》衆生爲淨土, 雜居止於編人. 世事是度門, 混農商於勞侶.

【編入 편입】끼어 들어감. 엮어 넣음. /宋, 許顛《彥周詩話》春水滿四澤, 夏雲多奇峰. 秋月揚明輝, 冬嶺秀孤松. 此顧長庚詩, 誤編入陶彭澤集中. /清, 黃六鴻《福惠全書, 刑名, 審盜》如此案果無其人, 須重責取保編入土番.

【編剗 편잔】편집하고 산삭(刪削)함. /唐, 韓愈《贈張籍詩》我身蹈丘軻, 爵位不早縮. 固宜長有人, 文章紹編剗. /清, 王士禛《池北偶談, 談藝 3, 李侍郎》有集二十卷, 手自編剗, 去留甚嚴.

【編著 편저】나열하여 기록함. 《韓非子, 難 3》法者, 編著之圖籍, 設之於官府, 而布之於百姓者也. 《後漢書, 皇后紀序》向使因設外戚之禁, 編著甲令, 改正后妃之制, 貽厥方來, 豈不休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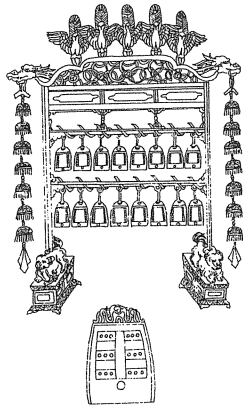
【編叮 편정】발이랑에 이어져 있음. 《文選, 張衡, 西京賦》篠蕩數術, 編叮成篋. 《薛綜注》編, 連也. 叮, 謂叮吹. 篋, 竹叢生也.

【編組 편조】엮어서 배열함. /宋, 田況《儒林公議, 上》生平纂集數百卷, 其劬勞至矣. 然皆聲韻偶麗, 編組事物, 鮮有及理之文.

【編條 편조】띠를 잠. /朝鮮《譯語類解補, 織造》編條, 띠 치다.

【編鐘(鍾) 편중】두 층의 곁이가 있는 틀에 층마다 음

들이 각기 다른 여덟 개의 종을 매달아 치는 타악기. 《周禮, 春官, 磬師》掌教擊磬, 擊編鍾. 〈鄭玄注〉杜子春讀編爲編書之編. 〈賈公彥疏〉杜子春讀編爲編書之編者, 按史記孔子讀易韋編三絕, 是古者未有紙, 皆以韋編竹簡, 此鍾磬亦編之, 十六枚在一簾, 故讀從之也. 《隋書, 音樂志下》二曰編鍾, 小鍾也, 各應律呂, 大小以次, 編而懸之, 上下皆八, 合十六鍾, 懸於一簾簾.



編鍾 《樂學軌範》

【編珠 편주】㉠한 줄로 편 구슬. 《初學記 1》尚書中候: 日月若懸璧, 五星若編珠. ㉡수(隋) 두공침(杜公瞻)이 지은 유서(類書). 2권. 당대(唐代) 이전의 고사성어(故事成語)를 초학기(初學記)의 체제에 따라 엮었다. 《四庫提要, 子, 類書類》

【編竹 편죽】가는 대나무나 대나무 쪽을 엮어서 세운 울타리. 바자울. /五代十國閩, 徐夔《茆亭詩》駕瓦虹梁計已疎, 織茅編竹稱貧居.

【編帙 편집】책의 편과 질. /明, 陶宗儀《輟耕錄, 莊蓼塘藏書》其家蓄書數萬卷……蓼塘既沒, 子孫不知保惜, 或爲蟲鼠蝕嚙, 或爲鄰識盜竊, 或供飲博之需, 或應糊覆之用, 編帙散亂, 所存無幾.

【編集 편집】=編輯. /宋, 司馬光《進資治通鑑表》臣光言, 先奉勅編集歷代君臣事迹, 又奉聖旨賜名資治通鑑, 今已了畢者.

【編緝 편집】㉠=編輯. 《魏書, 李琰之傳》前後再居史職, 無所編緝. ㉡편성함. 배열함. /明, 余繼登《典故紀聞 1》太祖爲吳王, 卽立管領民兵萬戶府, 諭省臣曰……今兵爭之際, 當因時制宜. 所定郡縣, 民間豈無武勇之材. 宜精加簡撥, 編緝爲伍, 立民兵萬戶府領之.

【編輯 편집】자료를 모아 체계나 구성에 맞게 엮음. 編摩. 編集. 編緝. 編纂. /唐, 顏真卿《干祿字書序》不揆庸虛, 久思編輯. /宋, 蘇舜欽《題杜子美別集後》今所存者才二十卷, 又未經學者編輯, 古律錯亂, 前後不倫.

【編次 편차】㉠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엮음. 《史記, 孔子世家》追迹三代之禮, 序書傳, 上紀唐虞之際, 下至秦繆, 編次其事. 《隋書, 音樂志上》案漢初典章滅絕, 諸儒撝拾溝渠牆壁之間, 得片簡遺文, 與禮事相關者, 卽編次以爲禮, 皆非聖人之言. ㉡편집하여 정리함. /北齊, 顏之推《顏氏家訓, 文章》吾家世文章……有詩賦銘誄書表啓疏二十卷, 吾兄弟始在草土, 並未得編次, 便遭火燼盡, 竟不傳於世. /唐, 孫棻《北里志序》靜思陳事, 追念無因, 而久罹驚危, 心力減耗, 向來聞見, 不復盡記, 聊以編次, 爲太平遺事云. ㉢배열한 순서. 또는 편집한 체례(體例). /唐, 劉知幾《史通, 六家》其編次多依放通史. /宋, 蘇軾《仇池筆記, 論文選》舟中讀文選, 恨其編次無法, 去取失當.

【編撰 편찬】자료를 모아 저술함. /宋, 佚名氏《張協狀元, 戲文, 2齣》精奇古怪事堪觀, 編撰于中美. /明, 張居正《纂修事宜疏》蓋編撰之事, 必草創修飾, 討論潤色, 工夫接續不斷, 乃能成書.

【編纂 편찬】=編輯. /唐, 白居易《河南元公墓誌銘》觀其述作編纂之旨, 豈止於文章刀筆哉. /宋, 文瑩《玉壺清話

5) 其樞密院事涉機密, 亦令本院編纂, 至月終送史館.

【編綴 편철】모아서 엮음. /唐, 李綽《尚書故實》武帝召興嗣, 謂曰, 卿有才思, 爲我韻之. 興嗣一夕編綴進上, 鬢髮皆白, 而賞賜甚厚. /明, 王守仁《傳習錄, 下》若論聖門所謂德業者, 却初不在日用之外, 只押文字, 便是進德修業地頭, 不必編綴異聞乃爲修業也.

【編牒 편첩】㉠명부에 짜 넣음. 《後漢書, 儒林傳論》若乃經生所處, 不遠萬里之路, 精廬暫建, 贏糧動有千百, 其耆名高義開門受徒者, 編牒不下萬人, 皆專相傳祖, 莫或訛雜. ㉡엮어 이어서 책을 만듦. 첩은 목간을 엮어서 만든 책. /南朝梁, 劉勰《文心雕龍, 書記》牒者, 葉也. 短簡編牒, 如葉在枝, 溫舒截蒲, 卽其事也.

【編置 편치】=編管. /宋, 俞文豹《吹劍四錄》晦菴樞職, 蔡元定編置道州, 卒. 《宣和遺事後集》遂竄蔡京儋州編置, 及其子孫三十三人, 並編管遠惠州軍.

【編派 편파】㉠균등하게 할당함. 고르게 분담함. /明, 徐樹丕《識小錄, 前輩格言》司牧者不知編派之源, 亦不知編派之總, 徒捶楚日間, 以求課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함. 《紅樓夢, 19回》黛玉聽了, 翻身爬起來, 按着寶玉笑道, 我把你這個爛了嘴的, 我就知道你是編派我呢.

【編貝 편패】나란히 배열한 조각비. 희고 가지런한 이를 형용하는 말. 《韓詩外傳 9》目如擗杏, 齒如編貝. 《漢書, 東方朔傳》臣朔年二十二, 長九尺三寸, 目若懸珠, 齒若編貝.

【編蒲 편포】한(漢) 노온서(路溫舒)가 양을 치면서 묵가의 부들 잎을 엮어서 글을 쓴 고사. 뒤에 어렵게 공부함을 뜻하는 전고로 쓰였다. 《漢書, 路溫舒傳》[路溫舒]父爲里監門, 使溫舒牧羊, 溫舒取澤中蒲, 截以爲牒, 編用書寫. /南朝梁, 任昉《爲蕭揚州作薦士表》至乃集螢映雪, 編蒲緝柳.

【編縣 편현】한대(漢代)에 둔 현. 소재지는 호북성(湖北省) 남장현(南漳縣)에 있었다. 《漢書, 地理志上》·《水經注, 漳水》

【編戶 편호】호적에 편입된 평민의 집. 編列. 編伍. 《漢書, 梅福傳》今仲尼之廟不出闕里, 孔氏子孫不免編戶. 《北齊書, 文宣帝紀》周曰成康, 漢稱文景, 編戶之多, 古今爲最.

【編戶民 편호민】호적에 편입된 평민. 《史記, 高祖本紀》諸將與帝爲編戶民, 今北面爲臣, 此常快快. 《漢書, 高帝紀下》諸將與帝爲編戶民. 〈顏師古注〉編戶者, 言列次名籍也.

【編戶齊民 편호제민】호적에 편입된 일반 백성. /漢, 桓寬《鹽鐵論, 通有》宋·衛·韓·梁, 好本稼穡, 編戶齊民, 無不家衍人給. 《後漢書, 仲長統傳》漢興以來, 相與同爲編戶齊民, 而以財力相君長者, 世無數焉.

【編訢 편훈】후한(後漢) 사람. 장제(章帝) 때의 치력관(治曆官). 원화(元和) 연간에 태초력(太初曆)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이법(李梵)과 함께 사분력(四分曆)을 완성하였다. 《後漢書 12》

9 緜

小篆	緜
說文·糸部	

- ㉠ 편 先 ㉡ 《集韻》蒲眠切 biàn
- ㉢ 편 仙 ㉣ 《廣韻》房連切 [蹠] piān
- ㉤ 편 銑 ㉥ 《集韻》補典切 [匾] biǎn